



데이빗 영맥주석

사사기

David Spriritual Commentary

들어가는 말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

석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
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
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
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사사기 1장 =====

[삿 1: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삿 1: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수 24:29]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 십 세에 죽으매" 그가 죽기 전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고작 다섯 지파(에브라임지파, 므낫세지파, 르우벤지파, 갓지파, 유다지파)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의 땅은 이미 모세 때 정복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 정복한 땅은 고작 서쪽의 두 지파 반이 취한 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일곱 지파의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대략 그의 나이 80세 정도 때였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와 함께 했던 갈렙의 나이가 80세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나이도 대략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때부터 7년동안 가나

안 땅을 정복하였는데 그 때 두 지파 반의 땅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7년 1차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안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취한 안식은 매우 길었습니다. 그는 대략적으로 20~25년 정도나 안식하였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는 일체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수 23: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는 1차 전쟁이 끝나고서 아직 땅을 취하지 못한 일곱 지파 수령들에게 각 지파가 취할 땅의 지도를 그려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수 18:4] 너희는 매 지파에 삼 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일곱지파(베냐민지파, 시므온지파, 스블론지파, 잇시갈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단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자

신들의 취할 땅의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긴 안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1차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났을 때의 여호수아 나이는 대략 87세 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 80세였어도 전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므로 여호수아도 갈렙 못지 않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차 가나안 전쟁에서 잘 싸운 여호수아에게 긴 안식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긴 안식을 취하는 바람에 그의 나이가 너무 들어서 늙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쟁을 치루지 못한채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일곱지파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여호수아의 강력한 지도력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런 여호수아가 죽어 버렸으니 저들로서는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것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

을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1절)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없으니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남이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보다 나 스스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한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듣는 음성보다 잘 못들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것은 사실입니다.

[삿 1:3]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

나라

‘유다’는 ‘유다지파’를 말합니다. ‘그 형제 시므온’ 역시 ‘시므온지파’를 의미합니다. 유다지파는 시므온지파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시므온지파는 흔쾌히 유다지파의 뜻을 받아 드렸고 함께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유다지파는 1차 가나안 정복 당시에 확보한 땅의 일부를 시므온지파에게 나눠 줬습니다(수 19:1-9). 그랬기 때문에 시므온지파는 당연히 유다지파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지파는 후일에 시므온지파가 자신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러나갈 때 함께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의 이러한 모습은 형제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서로 돕는 분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므온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매우 작은 분깃 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야곱의 선포대로 된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시므온은 누이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을 모두 멸살한 죄를 지었습니다(창 34장 25-29). 훗날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한 유언에서 시므온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흠어질 것

을 예언하였습니다(창 45:5-7). 야곱의 예언은 실제로 시므온 지파에게 일어났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가장 적었으며 가나안 땅 정복 때에도 시므온 지파의 분깃이 가장 작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여 유다지파가 취한 땅의 일부를 기업으로 얻어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훗날 유다지파에 예속될 정도로 그 지파가 크지 못하였습니다.

[삿 1:4]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섹에서 일만 명을 죽이고

[삿 1:5]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삿 1:6]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삿 1:7]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칠십 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지파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

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요단강 계곡과 평원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과 시돈과 두로를 포함한 베니게 지역 해변가에 거주한 원주민을 말합니다.

'브리스 사람'은 성벽을 세우지 않고 주로 산지에서 살았던 원주민을 가리킵니다.

'베섹'은 기브아와 길르앗의 야베스 사이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도니 베섹'은 베섹의 통치자 이름이었습니다.

[삿 1:8]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삿 1:9]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예루살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점령을 당하였지만 완전히 점령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지파는 완전히 점령되지 않은 예루살렘을 다시한번 재공격하여 완전히 점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지만 여부스족속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수 15:63]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

에 거하니라”

훗날 다윗왕 때에 재 점령이 이뤄졌습니다(삼하 5:6-9). 유다지파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의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습니다. 유다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은 산지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또한 남방 사막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변의 해안 평야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삿 1:10]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였더라

[삿 1:11]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유다는 그 이후에 헤브론을 공격하였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소였으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곳에 매장되었습니다(창 23:19, 창 25:9).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이전에 헤브론에서 7년간 유다지파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복 후 헤브론 성은 6개의 도피성 중의 한 성이 되었습니다(수 20:7).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는 헤브론에 거하였던 거
인족 ‘아낙’의 세 자손을 말합니다.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원래 이름으로 ‘네 개의
성읍이 하나로 뭉쳐진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드빌’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20km 지점
에 위치한 성읍이었으며 ‘기랏 세벨’이라고도 불
리웠습니다.

[삿 1:12]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
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
라 하였더니

[삿 1:13]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
이 그것을 취한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삿 1:14]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
기 아비에게 받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삿 1:15]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
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유다지파의 수
령으로서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렙
은 기랏 세벨과 싸울 때에 수하 장수에게 기랏 세
벨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

겻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갈렙의 이러한 약속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장수들에게 포상하는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기랏 세벨을 쳐서 그 성을 취하였기 때문에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옷니엘에게 주었습니다. 악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옷니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모의 뜻대로 결혼하는 자녀가 그리 많지 않겠으나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결혼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빈번하게 행해졌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악사는 옷니엘의 아내가 되어 가족을 떠나야 했을 때 결혼 빙물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는 딸에게 빙물을 주는 부모가 그리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받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샘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갈렙은 악사가 말한대로 샘물을 주었는데 윗샘과 아랫샘까지 더하여 딸에게 주었습니다. 옷니엘이 사는 곳은 남방지역이었습니다. 사막지역인 그곳은 샘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갈렙이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준 것은 딸의 생활을 염려함으로 더해 준 것입

니다.

[삿 1:16]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르 가리켜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출 3:1]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겐 족속이 미디안 족속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겐 족속이 미디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라면 겐 족속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의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는 가급적 애굽의 모든 생활습관이나 학습된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은 곧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철저하게 애굽의 문화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성경은 또한 그가 겐 족속이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겐 족속에 속한 사람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상 2:55]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레갑'은 겐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레갑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와 같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인정할 정도로 신앙심과 경건심이 지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레갑 가문의 후손들을 시험하여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을 때 그들은 단호히 예레미야의 권함을 거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대로 철저하게 경건하고도 신앙심 깊은 삶을 살겠노라고 말하였습니다.

“[렘 35:6]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렘 35:7]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렘 35:8]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렘 35:9]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렘 35:10]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겐 족속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 역시 얼마나 신앙심이 깊고 경건심이 뛰어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인 이드로의 삶은 고스란히 그 자녀

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가족들로 하여금 함께 거주하길 원했습니다.

“[민 10:29]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유목하는 백성으로 남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간곡히 저들이 함께 하길 원하였습니다.

“[민 10:31]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민 10:32]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결국 그들은 모세의 간청을 못 이기고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주하였던 것입

니다.

모세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겐 족속의 높은 신앙심과 경건심을 높이 평가하시어 저들과 함께 하는 백성까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 16절에는 그들이 '유다 황무지'에 거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비록 저들이 집을 짓지 않고 농경생활을 하지 않는 유목민이라 할지라도 황무지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황무지에는 유목하기가 매우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유다 황무지에서 거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천대함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살아 있었다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지극정성으로 겐 족속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좋은 땅을 내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죽고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바쁘게 살다 보니 겐 족속을 돌보는 일을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하여 여리고 성에 거주하였습니다. 성경은 여리고 성을 가리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만 하더라도 저들을 가장 좋은

평야지대에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점차적으로 여리고를 떠나 아랏 남방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결국은 유다 황무지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쓸모없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겐 족속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겐 족속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돕는 천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한 손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련해 놓으신 돕는 손길을 통해 우리는 환난과 역경의 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나면 우리를 도와 줬던 그 사람들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삿 1:17]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삿 1:18]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삿 1:19]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스밧’은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다와 시므온지파 연합군은 스밧을 점령한 후에 그곳을 ‘호르마’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 ‘스밧’은 시므온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는 아스돗과 가드와 함께 블레셋의 5대 성읍이었습니다. ‘가사’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대략 8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스글론은 가사의 북쪽과 아스돗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글론’은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은 남쪽에서부터 점차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성읍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은 가나안 골짜기에 거주하였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19절). 이스라엘 군사들은 철무기를 매우 구하기 힘든 무기였기 때문에 철병거로 무장한 거민들을 상대하기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지에 살고 있었던 거민족들을 물리쳤던 군사들이 철병거로 무장한 골짜기 거민들을 상대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오래 전에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수 17:16]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
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벤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
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수 17:17] 여호
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
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수 17:18]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
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
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
라”

[삿 1:20]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
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삿 1:21]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

나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헤브론 지역이 갈렙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모세 때부터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수 14: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밭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지만 실제로 갈렙의 손에 주어진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뤄진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에 거주하는 거인 아낙 자손을 물리친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의 장수였던 아낙의 세 아들을 물리치고 쫓아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자손'이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 15:63]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 두 구절이 서로 다른 것은 예루살렘이 요셉자손과 유다자손을 경계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지파는 벤 힌놈 골짜기와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서 서로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자손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베냐민지파와 유다지파가 맞는 것입니다. 비로소 다윗왕 시대 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삼하 5:6-10).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는 말은 B.C.1050-100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는 사사기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삿 1:22] 요셉 족속도 벤엘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삿 1:23] 요셉 족속이 벤엘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삿 1:24]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삿 1:25]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삿 1:26]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요셉 족속은 베엘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요셉 족속이라 함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일컫는 말입니다. 저들은 함께 베엘을 공략하러 올라갔습니다. 저들이 베엘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22절 하).

베엘을 공략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 바를 여쭘던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도 함께 하시며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셉 족속이 베엘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저들이 베엘을 공략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은 곧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 임하겠다는 것을 뜻합니

다. 이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했던 방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엘 공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요셉 족속은 베엘을 공격하기 위해 먼저 정탐군을 보냈습니다. 이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했던 방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탐군은 성읍의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공격할 수 있는 최상의 입구를 알게 되었으며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탐군에게 베엘 성읍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줬던 그 사람은 헛 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금 '루스'라는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이 살았었던 루스(베엘) 성읍을 잊지 않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베엘 성읍에 대한 애착이 큰 사람이었으며 누구보다 베엘 성읍을 아꼈던 사람입니다.

보통적으로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사랑하는 성읍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성읍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탐군에게 성읍 입구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만일 당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까? 베엘과 같이 당신이 정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찌 해야 할 바를 여쭙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은 요셉 족속처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 이름은 베이틴(Beitin)입니다. 이것에는 좋은 샘들이 많이 유목민들이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1차 정복기간에 아이 성과 함께 베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수 12:16). 그러나 그 이후에 가나안 거민들이 그곳에 들어와 살면서 저들의 수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요셉 족속이 다시금 베엘 성읍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헷 사람의 땅’은 헷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헷 족속은 인도 유폴피안(Indo-European) 족입니다. 이들은 B.C.1800-1200년 사이에 소아시아와 시리아 지역에서 저들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또한 시리아 지역은 헷 족속의 땅으로 불려졌습니다(수 1:4). 정탐군에게 비밀 입구를 가르쳐

주었던 그 사람은 시리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 곳에 베엘 성을 세웠던 것입니다.

[삿 1:27]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므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삿 1:28]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족속이 베엘 성읍을 정복한 것과는 달리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과 다아낙과 돌과 이블르암과 므깃도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베엘 성읍을 공격했을 때는 성공하여서 완전히 베엘 성읍의 거민들을 모두 쫓아낼 수 있었지만 므낫세 지파 단독으로 공격한 지역에서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공격하는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므낫세 지파가 인간의 의지로 공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베엘 성읍 공격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리고 성읍을 성공적으로 함락시킨 여호수아가 조

그마한 아이성 공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하지만 매우 작은 일을 당할 때는 '이 정도 쫓아야'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일보다 작은 일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작은 문제로 인해 큰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의지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할당된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러 성읍을 공격하였으나 결국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거민들을 쫓아내는 것에 실패를 하자 보다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거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27절 하). 이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매우 강경한 태도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사수하겠다는 모습입니다. 결국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땅에서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우

리는 어떠한 악이라 할지라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악이 없어야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악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면 우리는 이내 악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악이 우리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해지는 것입니다.

“[살전 5:22]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벤스안’은 요단 계곡과 이스라엘 골짜기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며 대략 요단강 서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주요 요새입니다. 라암세스 3세 때(B.C.1175-1144)까지 이곳에 애굽 수비대가 상주했지만 그 이후에는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향리’는 큰 성읍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변 촌락이나 위성 도시를 말합니다.

‘다아낙’은 므깃도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요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은 샤론평야에서 에스드렐론 계곡에 이르는 남서 통로를 지배했다고 전해집니다.

‘돌’은 갈멜산 남쪽에 있는 도시로서 가이사랴 북방으로 대략 13km정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돌은 요새화된 성읍이었으며 이곳은 고대로부터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블르암'은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에 위치한 주요성읍이었습니다. 므깃도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16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므깃도'는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한 도시로서 B.C. 12세기 중반까지 애굽이 통치하였습니다.

[삿 1:29]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삿 1:30]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삿 1:31]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삿 1:32]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삿 1:33] 납달리가 벤세메스 거민과 벤아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벤세메스와 벤아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삿 1:34]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삿 1:35]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하매 아모리 사

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삿 1:36] 아모리 사람의 지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므낏세 지파가 취할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파들도 그곳에 거한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시어 강경하게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던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감정에 휩쓸려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외세의 침입에 의해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지 못했던 성읍들을 보면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우상 성읍들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결과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단지파의 경우엔 오히려 아모리족속에 의해 산지로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원래가 평야지대였으나 아모리족속에 의해 산지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긴 결과를 당한 것입니다.

'게셀'은 가나안 평지에 위치한 도시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대략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중해변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기드론'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를 흐르는 시내인 기드론과는 다른 장소로서 이곳은 '하이퍼'에서 남동쪽으로 12km 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나할롤'은 아크레 평원 남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악고'는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로서 갈멜산에서 북쪽으로 대략 6km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대략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이며 베니게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알랍'은 두로 북동쪽에서 대략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악십'은 악고에서 동남쪽으로 대략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악고와 두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헬바’의 정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빅’은 하이퍼만에서 대략 5km 정도 떨어졌으며 악고 평원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베니게와 애굽을 잇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르홉’은 악고 평원에서 동남쪽으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벤세메스’는 갈릴리 고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으로 추정됩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벤세메스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벤아낫’은 벤세메스 부근에 위치한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아모리사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주하기 전에 그곳에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산지에서 거주하였습니다.

‘헤레스 산’은 태양의 산이란 뜻입니다. 이곳은 우상을 섬기는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얄론’은 여리고와 지중해 사이의 고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족을 격퇴시킬 때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이 머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알빔’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대략 25k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아얄론 부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그랍빔'은 전갈이란 뜻으로 그 지역에 전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졌으리라 추정됩니다. 사해 남쪽으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가파른 절벽지대로 추정됩니다.

사사기 2장 =====

[삿 2:1] 여호와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킴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삿 2:2]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찜이뇨

[삿 2: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과 언약을 맺고 저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입

니다. 우리가 세상을 좋아했으므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을 좋아했으므로 오히려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악을 쫓아내길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변의 악을 쫓아내지 아니할 때 오히려 그 악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어떠한 악이 있습니까? 모든 악한 물건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버리십시오. 가문의 전통에 따라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이라면 버리십시오.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떤 악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악한 생각은 무엇이라도 버리십시오. 옳지 않는 생각은 악한 행동을 야기시킵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이 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살전 5:22]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공격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주했던 곳입니다.

‘보김’은 베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삿 2:4]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삿 2:5]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사자의 경고의 말을 듣고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큰 소리로 운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벰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회개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는 회개가 함께 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삿 2:6]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

고

[삿 2:7]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삿 2:8]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 십 세에 죽으매

[삿 2:9]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 댐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 십 세에 죽으매”(8절).

여호수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로부터 대략 30여년 동안 화평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의 살아있을 때의 시절은 그 어떠한 때보다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이는 모세의 때보다 훨씬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삶은 광야의 삶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 대략 7년 동안에 걸쳐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비록

5개 지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였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어떠한 대적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20~25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내 쫓아주심을 1차 정복기간을 통해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빈다.

[삿 2:10]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삿 2: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삿 2:12]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죽은 후에 그 이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새로 자라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

다. 저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거민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사방에 있는 거민들의 신들을 좇아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더럽혔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저지른 잘못 중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었던 지도자였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잘못 행한 것 중 두드러진 것은 '성막'에 대한 것과 '자녀교육'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곧바로 성막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막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줄곧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났습니다. 성막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1차 가나안 정복기간 동안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다. 비록 전쟁 기간이다보니 정신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보다 성막을 세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성막을 세우는 것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의 영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1차 가나안 정복기간 동안 본부로 삼았던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평지입니다. 성막을 짓기에 매우 안성맞춤의 장소입니다. 길갈은 단 한 차례도 적들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거민들이 단 한번도 길갈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길갈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길갈을 성지로 삼으셨다는 증거이며 그곳에 성막이 세워지길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모든 백성이 할례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길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생활의 끝은 길갈이었으며 가나안의 시작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막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생활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상태가 느슨해진 이유는 바로 성막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막은 우리의 영적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일 오늘날 기독교인이 우리 몸이 성전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엄청난 영적 부흥은 삽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든 성전을 없애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

이는 성전이 없어져야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존속되고 있습니다.

”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호수아가 잘못 행한 또 하나는 '자녀교육'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녀를 잘 교육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교육은 좋은 대학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교육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교육

받지 않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교육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아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며 저절로 습득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에 있을 때에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누웠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도 '성막'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녀 교육'을 행치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자녀는 우상과 놀고 있을 것입니다. 우상과 친구가 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상의 자녀라면 모를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자녀가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집에 불상을 가지고 들고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당신의 자녀가 교회에 나가고 집안에 불상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마음에 우상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성막이 있

어야 합니다. 성막이 있는 가정은 자녀교육이 쉽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그들의 몸이 성막임을 인식시켜 줄 수만 있더라도 저들이 우상의 친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당신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삿 2:13]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수의 세대가 죽은 이후에 새로 자라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후는 우상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13절).

오늘날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버리다'는 단어는 <아자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떠나다', '버리다'란 뜻을 비롯하여 '남기다', '놓아주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여러가지이지만 결론적으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서로간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별입니다. 또한 헤어짐입니다. 서

로간의 합의하에 헤어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강제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에 배우자와 헤어지는 불륜을 연상케 합니다.

우상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헤어지는 사람도 불륜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불륜을 행하는 사람은 <아자브>를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자브'를 행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 마음이 아프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삶에 오히려 더욱 신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는데 강제로 헤어지는 사람의 마음은 매우 아플 것입니다. 당신이 당해보지 않으면 그런 헤어짐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람으로부터 헤어짐의 아픔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헤어짐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아자브>는 '무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통스러운 신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워 신음소리를 내는데도 배우자가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 맘이 아플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찢어질듯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 22:1]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한 다윗의 고통의 소리를 예수께서 그대로 지르셨습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무반응을 경험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똑 같은 고통의 소리를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 27:46] 제 구 시 즘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박다니>는 히브리어 <아자브>의 아람어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이 절규했던 소리를 1000년 후에 똑 같은 신음으로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1000년이라는 세월의 공간을 남겨 두고 있지만 그 천년 동안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절규와 같은 소리를 내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 절규를 내 지른 사람의 공통적인 아픔은 '헤

어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헤어짐을 통해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무반응을 통해 헤어짐의 고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무반응을 통해 헤어짐의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고통이 아파서 고통의 절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에 반응하지 않으시지?'란 의문이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 이러한 헤어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누리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셨나?'란 의문이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시면 어떻게 하나?'란 두려움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우상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두려움에 떨고 계심을 바라 보십시오. 그것을 느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에게도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차라리 전 지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신음으

로 절규하는 다윗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절대로 내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을 <아자브>하지 않게 하소서!"

[삿 2: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삿 2:15]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셨으며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으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이며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율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율법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출 15: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보다는 세상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새롭게 자라난 이스라엘 세대와 같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무려 400년 동안이나 가나안 거민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때문에 저들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세계에서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함을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증명된 사

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습니다. 저들의 모습이 나방과 같습니다. 불이 좋아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눈을 가려도 흰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외면하겠습니까?

[삿 2:16]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삿 2:17]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좇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삿 2:18]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어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공식적인 왕은 아닐지라도 각 지파를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때로는 왕의 역할

도 하고 때로는 장수의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이 곧 사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입니다. 사람이 임명한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임명한 지도자는 사람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조차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어 '사사'를 세워주셨건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사를 거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였듯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거부하는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마치 사람이 세운 지도자로 생각하는 경향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죄를 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를 사람의 지도자로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삿 2:19]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좇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삿 2: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삿 2:21]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삿 2:22]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의 지킨 것 같
이 나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
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삿 2:23] 그 열국을 머물러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
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거민을 모두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 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셨습
니다. "..... 나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
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22절 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
기 위해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 두고 계신지 모릅
니다. 만일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
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라면 우리
는 먼저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
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
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

[삿 3:1]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삿 3: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삿 3:3]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삿 3:4]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나안 거민을 모두 쫓아내지 않으시고 가나안 거민을 남겨 두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1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신세대를 말합니다. 가나안 1차 전쟁은 기원전 14-5년 경부터 시작하여서 대략 7년 동안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고자 남겨두신 가나안 거민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3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은 저들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4절).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십니다.

‘블레셋’은 원래 그레데(Crete)에서 가나안 남쪽 해안지대로 이주해 온 족속입니다. 이들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Ham)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가슬루힘’ 지파(창 10:14)에 속합니다. 이들은 기원전 332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때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습니다한다.

‘다섯 방백’은 블레셋의 5대 성읍(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기 이후에는 다섯 방백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 때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거민들을 말합니다.

‘시돈’은 해안도시 두로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시돈은 두로와 함께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 팔레스틴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베니게인(Phoenicians)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바알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의 헤르몬 산으로 추정됩니다.

‘하맛 어구’ 역시 정확히 어딘지 불확실합니다.

‘히위 사람’은 가나안의 후손으로서 이들은 호리 족속과 동일시됩니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창세가 36장 2절에서는 히위 족속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바로 뒤에 언급된 곳에서는 호리 족속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창 36:20, 25). 이들은 아마르나 시대(Amarra Age, B.C. 15세기~14세기) 동안에 북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미탄니(Mitanni)라는 매우 중요한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미탄니 왕국은 당시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었고 레바논 산지와 하맛 어구(수 11:3 ; 삼하 24:7). 그리고 기브온과 그 주변 도성에까지 이주해 살면서 가나안 문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삿 3:5]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

람과 여브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삿 3:6]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삿 3: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삿 3: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거민과 연합관계가 이뤄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거민을 아내로 맞아 드렸고 딸들을 가나안 거민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저들의 우상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7절 상). '잊어버리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와카흐>입니다. 이는 '잘못 놓다'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들 심령에 바로

놓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저들 심령 중심에 놓지 아니하고서 오히려 마음 바깥에 내버려 둬므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매우 불의한 죄악으로 인정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이는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만을 사랑해 달라는 요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남편이 한 여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여인을 사랑할 때에 이것은 간음입니다. 간음한 남편을 좋아할 여인이 없듯이 우상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정도 없으시고 항상 사랑만 베푸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간섭치 아니하시고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쉽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가나안 거민과 연합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저들의 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은 저들을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메소보다미아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맞게 하십니다. 문제를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메소보다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으로 유브라데(Euphrates) 강과 티그리스(Tigris) 강 사이의 광대하고도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과의 거리는 너무나 먼 거리여서 유다 사사 웃니엘과 싸우기에는 거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집트와 앗시리아의 문서들을 통해 팔레스타인 북방의 하맛 지역도 메소보다미아로 보기 때문에 만약 그 지역이라면 웃니엘과의 전쟁을 치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메소보다미아의 왕이라고 하였는데 성경에서는 그 왕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손에 파셨으므로’라는 뜻은 노예를 팔듯이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메소보다미아의 노예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삿 3: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

[삿 3:10] 여호와와 그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

에 붙이시매 옷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
기니라

[삿 3:11] 그 땅이 태평한지 사십 년에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메소보다미아의 노예 생활로 힘
들어 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키 위해 구원자
를 세워주셨습니다. '부르짖다'는 말은 <자아크>
입니다. 이 말은 '힘을 다해 외치다', '전심으로 부
르짖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스라엘 자손들이 메소보다미아의 통치아래 얼마
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
니다.

저들의 노예생활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저들
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
리셨다는 듯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
자의 이름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
엘'이었습니다. 옷니엘은 기랴트 세벨을 점령함으로
써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아드렸던 장수였
습니다.

하나님은 옷니엘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메소보다미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으로 구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르짖음에는 우리의 잘못을 빠져 리게 느끼는 회개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삿 3:12]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삿 3:13]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삿 3:1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십팔 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메소보다미아의 압제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40년간 평화를 누렸으나 이내 곧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악한 세력이 믿는 자보다 더 잘

될까?’라며 의문을 갖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강성케 하심은 악한 세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케 하시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강성케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면 어쩌면 당신의 죄악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게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과의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모압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거주지역은 사해 동쪽의 고원지대였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모압 땅을 건너가고자 했을 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할 방책을 모색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란죄를 범하게 함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신 23:3-6).

‘에글론’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 초기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자로서 여리고 부근의 요단 강서

부 지역을 한때 점령하였습니다.

'암몬'은 롯이 그의 둘째딸과의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암몬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모압 북쪽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이들은 모압과 함께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말렉 자손'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을 조상으로 하는 족속입니다. 이들은 팔레스틴 남방에서 시내 반도에까지 이르는 광야지대였습니다. 이들은 사사 시대 동안 미디안과 화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기드온에게 격멸당하였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의미합니다.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첫 관문이 되는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삿 3: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삿 3:16]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삿 3:17]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삿 3:18]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삿 3:19]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삿 3:20]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삿 3:21]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삿 3:22]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삿 3:23]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삿 3:24]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삿 3:25]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삿 3:26]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리로 도망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인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환난과 고난의 아픔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은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은 회개와 함께한 것입니다. 반드시 부르짖음에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회개없는 부르짖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부르짖을 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더 진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회개를 동반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빨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삿 3:27]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삿 3:28] 우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삿 3:29] 그 때에 모압 사람 일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삿 3:30] 그 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팔십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 나루터를 우선적으로 점령하였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모압 군사들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요단강 나루터를 통해 모압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에훗이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훗은 그곳에서 모압 사람 1만 가량 죽였습니다. 성경은 모압 사람을 가리켜 '다 역사요 용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주한 모압 사람은 대부분이 군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80년 동안 태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삿 3:31] 에훗의 후에 아낏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에 이어 아낏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으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거할 장소로 가나안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며 저들의 악이 관영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저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가나안 우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처럼 우상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세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엘(El)

'엘'은 가나안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엘은 모든 신들의 아버지였으며 신들이 모여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을 인도하는 최고의장이었습니다. 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었으며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견주어서 '엘'이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세라(Asherat)

아세라는 '엘'의 아내였습니다. 아세라 여신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 신은 나체 여신상으로 만들어져서 주로 바알신과 함께 숭배되어졌는데 이는 바알은 '엘'의 후계자이고 아세라는 '엘'의 아내로서 모든 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왕상 14:15, 왕하 13:6, 대하 31:1, 사 17:8, 렘 17:2).

바알(Baal)

바알은 '엘'의 아들이며 후계자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가리켜 '하늘의 주(Lord of heavens)'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은 '다곤 신의 아들'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다곤'은 곡물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삼상 5장, 삿 16:23).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신을 가장 많이 숭배했습니다(민 22:41, 삿 10:6, 삼상 7:4, 왕상 19:18). 바알은 모압인들에 의해 '바알브올(Baal-Peor)' 혹은 '브올'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민 25:18). 또한 불레셋 인들은 바알을 '바알세뵘(Baal-Zebub)'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뵘'은 '귀신의 왕'이란 뜻으로 마귀의 별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마 10:25, 막 3:22, 눅 11:15).

아낫(Anath)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 중에는 아세라, 아낫, 아스다롯이 있었습니다. '아낫'은 '바알'의 누이이며 애인이었습니다. '아낫'의 모습은 정열적이고 흥분스러운 젊은 여성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아낫' 여신에게 바쳐진 남성을 가리켜 '미동' 또는 '남색하는 자'로 번역되고 있

습니다(왕상 14:24, 왕상 15:12, 왕상 22:46, 왕하 23:76).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낏' 여신을 위해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마련했습니다(왕하 23:7).

아스다롯 (Ashtaroth)

아스다롯'은 '저녁별의 여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렘 44:19). '아스다롯'의 모습은 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아스다롯 여신을 숭배했습니다(왕상 11:5).

못(Mot)

'바알'신이 인간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착한 신이라면 '못'은 사망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악한 신이었습니다(욥 18:13-14). '못'은 '바알'과 싸워 승리하였으나 '바알'의 누이 '아낏'에게 패배한 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낏'은 죽은 '바알'을 살렸고 '바알'은 그렇게 가나안 신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얌(Yam)

가나안 족속에게 알려진 또 다른 악한 신은 '얌'입니다. '얌'은 '못'과 함께 '바알'을 대적했습니다. '얌'은 '리워야단'으로도 불리는데 그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같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얌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로 바다 깊은 곳에 산다고 여겼습니다. 구약에는 리워야단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며 우리 나라 말로는 '악어'라고 번역되었습니다(시 74:14, 시 104:26, 욥 41:1, 사 27:1).

몰렉(Molech)

'몰렉'은 '밀곰(Milcom)' '말감(Malcham)'으로 불려졌으며 암몬족속의 국가신이었습니다(레 18:21, 왕상 11:5, 왕상 11:33, 왕하 23:10, 렘 49:3, 행 7:43). 몰렉은 황소 머리에 사람의 형상을 띄고 있으며 '몰렉'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신 12:31, 겔 16:20). 모세는 몰렉을 숭배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켰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몰렉'을 숭배했습니다(레 18:21, 레

20:1-5).

솔로몬은 '몰렉'을 위해 신당을 세웠으며 아하스와 므낫세 왕은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왕하 16:3, 왕하 21:6). 요시아 왕은 몰렉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금지시켰지만 오히려 유대 말기 때는 더욱 몰렉 숭배가 왕성해졌습니다(렘 7:31, 겔 16:20-21, 겔 23:3, 겔 23:39). 사사시대 때 입다가 암몬 왕에게 "너희 신 그모스"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모스'가 '몰렉'입니다(삿 11:24).

그모스 (Chemosh)

'그모스'는 모압인의 국가신이었습니다(왕상 11:7, 왕하 23:13, 렘 48:7). '그모스'는 암몬족속의 '몰렉'신과 같은 신으로 '그모스' 신 역시 어린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모스'신을 위해 신당을 건립했습니다(왕상 11:7-8).

다곤 (Dagon)

'다곤'신은 사람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통의 모양

을 지닌 우상으로 블레셋인들의 신입니다(삼상 5:2, 대상 10:10). '다곤'은 날씨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기원전 2,500년 전부터서 숭배되어져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서는 곡물의 신으로 섬겨졌던 것은 날씨가 곡물생산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족속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입니다(창 19:38).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멸망을 당할 즈음에(BC 2067년경) 천사의 도움으로 피신을 한 이후에 큰 딸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자녀가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요단강 동편 고원지대에 거주하였는데 위로는 암몬 족속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으며 아랫쪽에는 에돔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요단강과 사해바다로 경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관계는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

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관문이었습니다(신 2:8-9). 모압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삿 11:17). 모압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켰습니다(민 22-24장, 수 24:9).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인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을 위한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신 23:6). 사사시대 때 모압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18년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습니다(삿 3:12-14). 하나님의 은혜로 베냐민 사람 원손잡이 에훗을 통해 에글론을 죽게 하였고 저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삿 3:15-30).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몇 사람의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개된 '룻'은 모압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가뭄이 들어 생활이 힘들어지자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 아들이 룻과 결혼하였지만 아들은 죽게 되었고 룻은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됨으로써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것입니다(룻 4:1-15,

마 4:5).



다윗은 모압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들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대상 18:2). 솔로몬 때는 모압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므로 이스라엘과 우호관계를 맺었지만(왕상 11:1) 저들이 가지고 온 모압신 그모스를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왕상 11:7,33).

아합왕 때까지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왔

습니다. 그러나 아합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모압은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 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압 족속은 앗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저들의 수하에 놓여지게 되었으며 그 땅은 주인없이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세기가 지난 BC 1세기 경 나바타인(Nabateans)이 정착하여 그곳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곳은 요르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4장 =====

[삿 4:1]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삿 4:2]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삿 4:3] 야빈 왕은 철병거 구백 승이 있어서 이십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사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항상 평안한 시기 때에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평안한 시기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겠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듯 합니다. 우리 또한 평안할 때 죄를 범합니다. 인생의 환난과 고난 중에 죄를 범하는 것보다 오히려 평안한 시기에 더 많은 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어쩌면 평안한 시절 때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자 이번엔 가나안 왕 야빈을 크게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 자손의 대적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의해 무려 20년 동안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 - ‘하솔’(Hazor)은 가나안 땅 북쪽의 갈릴리 호수 지역에 위치한 메롬 호수 부근의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 - ‘야빈’이라는 말은 애굽의 ‘바로’(Pharaoh)처럼 왕에게 붙는 칭호처럼 사용되는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솔이라는 지역에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쓰인 ‘야빈’이라는 것은 왕의 이름이라기 보다는 칭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 하로셋’ - ‘이방’이라는 말은 ‘열국’(nations)을 의미합니다. ‘하로셋’이라는 명칭이 지명인지 족속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이곳에만 언급된 명칭입니다.

[삿 4:4]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삿 4:5]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벰엘 사이 드

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왕 하빈의 손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 여선지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사사로 세우신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사사기 전체적으로 모두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드보라만이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여성을 들어 사용하신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인을 높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을 높는데 자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전혀 가리지 않고서 평등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드보라에게 '여선지'라는 호칭을 부르고 있는데 '여선지'라는 말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사사가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받은 장수이며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의 장수였으며 백성을 재판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 ‘라마’는 납달리지경에 있는 ‘라마’가 아니라 베냐민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으로 예루살렘 북쪽 대략 10km 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곳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렘 31:15;마 2:18)라고 읊었던 라마가 바로 이곳이다.

[삿 4:6]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일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삿 4:7]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삿 4:8]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삿 4:9]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렀습니다.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왕 야빈이 거하고 있었던 '하솔' 성에서 대략 동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은 아마도 북쪽 지역에 거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냐민 지경에 거하고 있는 드보라를 사용하시고 납달리 지역에 거하는 바락 장수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비록 북쪽지역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 장수를 불러 그로 하여금 전쟁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여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여자이기 이전에 '선지자'였습니다. 드보라는 싸움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능통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락 장수는 선뜻 드보라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

니....”(9절 중)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락이 드보라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습니다. 하지만 바락 장수는 어떠한 연유에 의한 것인지 드보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8절)고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바락 장수가 드보라의 말대로 행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쟁에서 바락 장수는 아무런 영광을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장수가 전쟁에서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더 추한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바락은 자신의 생각과 드보라의 말이 틀려서 드보라의 말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신뢰성이 없으며 말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같은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듯이 지도자의 말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삿 4:10]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일만 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

와 함께 올라가니라

[삿 4:11] 모세의 장인 호باط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 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삿 4: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삿 4:13]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구백 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삿 4: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일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삿 4:15]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삿 4:16]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대로 군사 일만 명을 모집 하였습니다. 그는 스블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사람들 중에서 일만 명을 모집하여 게데스로 모이 게 했습니다.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

로 부르니 일만 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10절 상). 바락은 스블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중에서 일만 군사를 모집할만한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나라 전체적으로 상주해 있는 군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에 따라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치렀기 때



문에 가나안과의 전쟁을 위해 바락이 스블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중에서 군사를 모집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락이 오직 스블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중에서 군사를 모집한 것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억압을 받고 있는 지파가 이처럼 북쪽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때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억압이 아닌 북쪽 지역에 속한 지파들이 가나안의 속박가운데 고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바락이 군사 일만 명을 모집한 것에는 성공하였을지라도 가나안 900 철병거 군대를 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군사도 가나안 900 철병거 군대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심으로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 쪽으로 기울렸으며 결국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선지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음성을 들려 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바락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장막을 쳤더라’(11절) - 모세의 장인은 호밥이 아니라 ‘르우엘’(출 2:18, 민 10:29) 또는 ‘이드로’(출 3:1, 출 4:18, 출 18:1)였습니다.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처남이었습니다.

“[민 10:29]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말했던 것은 ‘장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탄>이 ‘처남’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삿 4:17]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삿 4:18]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삿 4:19]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삿 4:20]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삿 4:21] 그가 곧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쥍에 박으매 말뚝이 꺾뚝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삿 4:22]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쥍에 박혔더라

[삿 4:23]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삿 4:24]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는 전쟁에 패하여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간 이유는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17절 하).

겐 족속은 주로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는 저들이 유대 지파 중에 거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삿 1:16]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런데 겐 족속 헤벨은 유다 지파가 아닌 북쪽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가나안 족속과 화평조약을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원래 겐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보내었던 특별한 수호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겐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겐 족속이었던 헤

베이 자기 족속을 떠나 기거하면서 가나안 왕과 화평을 맺고 살았던 것은 매우 복잡한 뒷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벨이 자신의 족속을 떠나 가나안 왕과 화평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것 때문에 오히려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헤벨 가족은 자기 족속을 떠나 북쪽 지역 광야에 거할 때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사정보다는 안 좋은 사정 때문에 친족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친족과 헤어져 홀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있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듯 홀로 지내는 사람에게 희망의 빛을 주셨으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였던 것입니다.

야엘은 시스라의 살쩍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가 누어 잠들었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비록 시스라가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살쩍에 말뚝을 박을 때에는 잠들어 있는 시스라가 깨어날 수 있었고 오히려 시스라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엘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시스라의 살쩍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살쩍’은 ‘관자놀이’를 뜻합니다. 관자놀이는 안경 다리를 거는 부분입니다. 귀 바로 앞쪽으로써 머리의 통증을 느낄 때 주로 손으로 주무르는 곳으

로 다른 부분에 비해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관자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temple'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영어의 뜻이 이렇게 아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겐 족속 사람들은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말뚝을 박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야엘이 사용했던 말뚝은 장막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말뚝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야엘의 말뚝은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뚫고서 땅에 박힐 정도로 깊숙히 박혔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뚝을 내리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에도 야엘의 말뚝이 깊숙히 박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이 뚫어지며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못된 행위가 뚫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 속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세력이 뚫어져 파쇄되어야 합니다.

겐 족속과 레갑 후손

겐 족속은 누구인가?

“[대상 2:55] 아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성경은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레갑 후손들은 겐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겐 족속에 대해 보다 잘 이해를 하려면 '레갑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을 알 때 보다 명확해집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겐 족속 사람들이 '서기관 족속'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가리켜 겐 족속이라고까지 불리어졌습니다.

성경은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언급된 그들은 주로 '황무지'에 산다는 것입니다.

“[삿 1:16]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또한 그들은 농경생활보다는 유목생활을 했으며 주로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삿 4:11] 모세의 장인 호باط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임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가족들로 하여금 함께 거주하길 원했습니다.

“[민 10:29]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باط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유목하는 백성으로 남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간곡히 저들이 함께 하길 원하였습니다.

“[민 10:31]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민 10:32]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결국 그들은 모세의 간청을 못 이기고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레갑 자손은 누구인가?

레갑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의 신앙심과 경건심을 인정 받았습니다.

“[렘 35:18]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렘 35:19]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자손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순종심을 칭찬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와 시종드는 영예로운 자손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와 시종드는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 보다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내린 명령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따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렘 35:6]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렘 35:7]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렘 35:8]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렘 35:9]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렘 35:10]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될 때 취하게 되어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하셨지만 성소에 들어가 의식을 집행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레 10:9]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경우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조차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민 6:3]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

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도록 하셨습니다. 레갑 자손들도 나실인처럼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는 레갑자손처럼 전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생활가운데 어느 정도 포도주를 취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서구 목회자들은 식사 때나 파티 때 가벼운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포도주에 대한 제사장의 규범과 나실인의 규범이 다른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사뭇 다른 규범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착된 삶을 의미합니다. 저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지 않고서 장막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

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소유 개념입니다. 이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경생활을 하지 않고서 유목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목생활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먹고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마련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러한 무소유 개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레갑자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조 요나답이 남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가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받아 드리지 않았으며 오직 그것만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의 전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렘 35:16]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아내가 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예 아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비록 남편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남편이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는 것은 아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5장 =====

[삿 5:1]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
이 노래하여 가로되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여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찬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3절과 7절에 "나"라는 1인칭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노래의 저자가 드보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바락과 함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1절)라고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여인이 만든 노래는 드보라의 노래 외에 '미리암의 노래'(출 15:21)와 '한나의 노래'(삼상 2:1-10),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눅 1:46-55)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의 주인공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길 원하십니다.

“[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삿 5:2]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삿 5:3]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2절 상)’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힘을 다해 백성을 잘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영솔하다’란 뜻의 히브리어는 <파라>인데 이는 ‘석방시키다’, 또는 ‘자유케 하다’란 뜻 외에도 ‘힘을 과시하다’, ‘지도자로 행동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삿 5:2]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용감히 앞장섰고 백성들은 기꺼이 따라 나섰다”

[삿 5:4]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삿 5:5]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

다

[삿 5:6] 아낏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4절 상)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했다’(4절)는 말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4절)라는 표현은 아마도 노아의 홍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 시내 산도 진동하였다’(5절)는 말은 출애굽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백성에게 나타내실 때에 산이 진동하였습니다(출 19:16-19).

‘삼갈의 날에...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다’(6절)는 내용은 블레셋족과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하에서 고통을 당한 때를 연상케 합니다. 이때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이 소로로 다녔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가 무너졌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을 노래

로 표현한 것입니다.

[삿 5:7] 이스라엘에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에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7절 상)라는 말은 이방족속에 의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만한 관리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라고 드보라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대의명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을 드보라같은 여자가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대로 드보라가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드보라는 스스로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말은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듯이 그러한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구출하여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드보라는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삿 5:8]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때에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삿 5:9]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삿 5:10]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삿 5:11] 활 쏘는 자의 지꺼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길는 곳에서도 여호와와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라 그 때에 여호와와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8절)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에 의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미’같은 드보라를 보내셨으니 이는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모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9절).

백성의 지도자는 반드시 백성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지도자는 사랑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벧전 5: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드보라는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10절)고 권고하였습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은 매우 귀한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흰 나귀는 평범한 나귀가 아닙니다.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또한 상류층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화문석’은 일반 사람들이 구하기 힘든 매우 귀하고 비싼 물건입니다. ‘선포할지어다’는 ‘전파하다’란 뜻입니다. 상류층이든 일반 평민이든 할 것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의 지꺼림에서’라는 말은 ‘대적자들의

소리에서'라는 말입니다. 대적자의 소리에서 머리 떨어진 물 길는 곳에 있는 화평한 곳에서 하나님 의로우신 일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물 길는 곳은 '우물'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우물은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압제 하에 있을 때는 마음놓고 우물가에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이제는 마음껏 우물가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삿 5:12] 깟지어다 깟지어다 드보라여 깟지어다 깟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네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삿 5:13] 그 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드보라는 스스로를 가리켜 "깟지어다 깟지어다 드보라여 깟지어다 깟지어다..."(12절 상)고 외쳤습니다. 이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의식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깨어 있지 않으면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항상 깨어 있는 자는 노래하는 자입니다. 깨어 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자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

어야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사로 잡은 가나안 군사들을 포로로 이끌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바락 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네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12절 하). 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전쟁 포로를 끌고 왔을 때에 남아 있는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13절 상). 이는 많은 귀인들과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하에 해외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보라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13절 하)고 말한 것은 가나안 군대와와의 전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비록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녀가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대신해서 바락이 전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드보라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이 차라리 마

음은 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은 그녀가 싸움을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드보라의 마음에 부담감이 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바락에게 나가 싸울 것을 명령했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여선지자로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은 그녀의 부담감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삿 5:14]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삿 5:15] 잇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잇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좇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삿 5:16]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이뇨 르우벤 시냇가 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이번 전투에 참가한 용사들은 전에 아말렉 족속이 거주했던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요..."(14절 상)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공동번역과 RSV에서는 '아말렉' 대신에 '골짜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 내에 아말렉 족속이 거주했던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와 그 주변 골짜기였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14절 중)라고 언급한 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지파들과는 달리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일부 사람들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하에 놓였기 때문에 드보라가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또한 "...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14절 중)라고 말했는데 '마길'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독자로서(창 50:23) 마길의 자손은 곧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에 나뉘어 졌습니다(수 17:1-3). 바락이 가나안 군대와 싸울 때에 므낫세 지파는 지도자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드보라는 스블론에 대해서 "... 스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14절 하)고 언급하였습니다. '대장군'에 해당되는 원어가 <사파르>인데 이는 '서기관'을 뜻합니다. 스블론은 납달리 지파와 함께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이 큰 지파입니다. "스블론에게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다"라는 말은 전쟁을 지도하는 인도자가 스블론에서 나왔으며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 행정적인 분야를 책임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전쟁에 함께 했던 자들을 언급하면서 "잇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15절 상)라고 말하면서 잇사갈에서도 방백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참여하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잇사갈 지파에서 온 군사들은 철저히 바락의 말에 충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최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잇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드보라는 "...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15절 하)라고 말한 것은 르우벤 지파에

서 이번 전쟁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서둘러 전쟁에 참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태평하게 논의만 하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드보라는 저들의 태평함을 가리켜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이뇨..."(16절 상)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삿 5:17]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름은 어찌이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드보라는 계속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에 대해 언급하면서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17절 상)이라고 말하면서 길르앗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가리킵니다. 저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드보라는 단 지파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 단은 배에 머무름은 어찌이뇨..."(17절 중)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단 지파가 베니게 사람들과 무역을 행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 지파는 형제 지파로부터 전쟁에 참여해 달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전쟁에 참여하

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평상시처럼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듯이 아셀 지파 또한 생업에 종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드보라는 "...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17절 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에 거주한 지파로서 가나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스블론 지파와 납달지 지파 지역과 인접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쟁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업에만 종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삿 5:18] 스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삿 5:19]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므깃도 물 가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삿 5:20]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삿 5:21]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삿 5:22] 그 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삿 5:23] 여호와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오직 이번 가나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지파는 스블론과 납달리였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서 싸웠습니다. 스블론과 납달리 지파가 싸웠던 가나안 군대는 900 철병거를 이끈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왕 야빈이 동맹을 맺은 여러 나라들도 이번 전쟁에 포함되었습니다. '열왕'들은 가나안 전쟁에 가나안을 도와 주러 온 여러 나라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군대만 상대해서 힘들 전쟁이었는데 게다가 여러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든 전쟁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적 가나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당면하는 문제가 너무나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강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발휘해 보십시오. 드보라가 주님의 힘을 보면서 감격했듯이 당신에게도 그러한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삿 5:24]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삿 5:25]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삿 5:26]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쥍을 꿰뚫었도다

[삿 5:27] 그가 그의 발 앞에 꾸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꾸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꾸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드보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노래 가사를 지었습니다. 이는 야엘이 죽음의 위험을 무릎쓰고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를 말뚝으로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보통 여인으로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엘은 오직 이스라엘의 원수된 시스라를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으로 그런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엘의 행동은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고 이스라엘에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온 백성이 야엘을 칭찬하였고 하나님은 야엘에게 복을 더하셨을 것입니다.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죽은 모습이 어찌나 기쁘고 기뻐했던지 드보라는 시스라가 죽는 장면을 세 차례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꾸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꾸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꾸부

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27절)

[삿 5:28]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르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

[삿 5:29]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삿 5:30]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 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삿 5:31]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시스라가 여인 야엘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을 때에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녀들은 시스라가 노략물을 취하여서 귀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 죽어간 시스라의 모습과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대조적으로 언급하면서 지혜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엘은 지혜로운 자였으며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녀의 시녀들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야엘은 겉사람으로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일했지만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녀의 시녀들은 같은 여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엘의 남편이 가나안 왕 야빈과 평화협정을 맺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적군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야엘은 그러저 남편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녀의 시녀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드보라는 시스라 어머니의 시녀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시녀들'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녀들이 지혜로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들 스스로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노략물을 취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그녀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시녀들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죽을 수 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자신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마귀는 세상을 통해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너희가 세상의 지혜로운 자이니 마음껏 세상의 정욕대로 원하는 것을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된 증언에 속아 넘어가고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마귀에 속한 사실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 보고 계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마귀가 저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는 장본인인줄 모르지만 실제로 멸망이 저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 또한 모릅니다.

사사기 6장 =====

[삿 6: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칠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삿 6:2]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삿 6:3]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삿 6:4]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삿 6:5]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가나안의 압제 하에서 해방되어 화평한 기간을 누렸던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고통가운데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7년 동안 미디안을 통해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창 25장 1-4). 그들은 유목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으며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출 2:15-22).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의 고통을 피해 산에 구멍과 굴을 뚫어 숨어 지냈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미디안을 통해 당한 고통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을 감히 넘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자 그리 강하지 않은 미디안을 통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통이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고통을 막아주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을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행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는 악을 막아주지 아니함으로 결국 우리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우상섬김'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악이고 게으른 것조차 악입니다. 하지만 많은 악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은 '우상섬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악은 참으시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할 때는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죄만큼은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이라고 해서 모두 똑 같은 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떤 악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크고 작은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듯이 이스라엘 자손 또한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임한 고통은 엄청 클 것이며 당신은 그 고통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삿 6:6]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

있더라

[삿 6:7]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고로

[삿 6: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삿 6:9]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삿 6:10]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심히 미약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회개를 동반한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우상을 멀리하고서 더 이상 우

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부르짖음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입니다. 당신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부르짖기만 했지 우상을 멀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부르짖음은 우상을 위한 부르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우상이 당신의 자녀라면 당신이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소리는 우상을 위해 부르짖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만일 재물이 당신의 우상이라면 당신이 재물을 위해 부르짖는 소리는 우상에게 부르짖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부르짖음이 왜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죄는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이것 만큼은 꼭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섬김에 대한 회개'입니다. 당신은 철저하게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당신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있는 고통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섬기고 있는 우상은 우리 주변의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에는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이나 '직분'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위에 두는 그 어떠한 것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상'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더욱 절하라고 당신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더욱 우상과 친하라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겠습니까?

[삿 6:11] 여호와와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삿 6:12]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삿 6: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14절에는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14절).

구약성경에는 자주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여호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 3: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지라 [출 3:3]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출 3: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 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처 하갈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 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실 때 ‘여호와의 사자’와 로 나타나셨지만 이내 곧 ‘여호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창 21:17]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 시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 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 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모세와 하갈과 같이 기드온에게도 같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 님의 사자’로 처음에 나타나셨습니다. 기드온은 ‘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알 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12절)라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톱 쏘는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13절 상). 기드온의 불만은 미디안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례하지만 하나님께 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나는 의심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야 정상이라는 생각이 우리들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였습니다. 원래 밀타작은 평평한 마당에서 해야 하지만 미디안 군사들에게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얻기 위해 구덩이를 파서 그곳에 포도주 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 타작을 했던 것입니다. 구덩이에 들어가서 밀 타

작을 하니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더군다나 미디안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홧김에 하나님께 그런 불평의 소리를 내 뱉었던 것입니다.

[삿 6:14]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삿 6:15]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삿 6: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불만을 토로하는 기드온에게 "...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14절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임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는 그가 지극히 작은 지파의 사람이며 보잘 것없는 출신이라

는 것입니다. "...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15절 하).

우리도 곧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처럼 변명을 합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저마다 그럴 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로부터 구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비록 불순종하는 의사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쓸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당신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세와 기드온처럼 조금은 거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강히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단호히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멸망시킬 수 있는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삿 6: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삿 6:18]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삿 6:19]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삿 6:20]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삿 6:21]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

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믿기엔 기드온의 믿음이 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17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바로 믿지 못하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였지만 기드온의 이러한 태도는 대충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나은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충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충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사람의 교회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충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드온의 태도입니다. 기드온은 대충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했으지라도 기드온은 그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라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요구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비록 기드온처럼 표징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기드온의 요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기드온과 같은 열심이 있습니까? 당신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에 대해 갖는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해 드릴까 생각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릴까 생각하는 마음이 적지는 않습니까?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하자 여호와와 사자는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온 고기와 국을 반석 위에 놓고서 반석에 지팡이 끝을 대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태웠습니다. 기드온의 열심이 하나님의 표징을 얻게 된 것입니다. 표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표징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보다 차라리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 이러한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삿 6:22]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삿 6: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삿 6:24]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그가 만난 사람이 여호와와 사자인줄 알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슬픔은 탄식입니다. 후회가 담긴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그가 이러한 탄식이 있을 때 두려움이 몰려 왔습니다. 혹 여호와와 사자를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온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죽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출 33:20]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인간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취하려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죽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공기가 이 세상에 가득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공기 중에 가득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합 2:14]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

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도록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후 4:6]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곧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죽지 않

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23절)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기드온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을까요? '영광'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흔해 빠진 단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만 하면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음식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우리의 영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영은 더욱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삿 6:25]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칠 년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의 아세라 상을 찌고

[삿 6:26]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찌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삿 6:27]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고로 죽을 것을 염려하는 기드온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곧 바로 그에게 "우상을 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만

일 기드온이 우상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를 그렇게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세워진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습니다(25절).

하나님은 기드온이 살고 있는 성 위에 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되 찍어 버린 아세라 목상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칠 년된 수소를 잡아다가 제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 7년된 수소를 잡으라고 명하셨을까요? 이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고통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일부러 7년된 수소를 잡으라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바알의 단을 헐어 버렸으며 거대한 아세라 목상도 찍어 버렸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종 열명을 데리고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성읍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대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이 되었을 때 행했습니다. 비록 기드온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에 행하였을지라도 기드

온의 우상파쇄 행위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이 당신에게 떨어졌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과감하게 바알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상을 찍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우상이 귀하고 아깝고 사랑스럽고 오래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감히 우상을 파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파쇄하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을 파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상을 파쇄하면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삿 6:28]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훼파되었으며 단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

는지라

[삿 6:29]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
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
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삿 6:30]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
알의 단을 훼파하고 단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
니라

[삿 6:31]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자에게 이
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
대 그 단을 훼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
라 하니라

[삿 6:32]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
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훼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
린 일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 알아 보았고 기드온이 그 일의
범인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기
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사람들 앞에 세우고 기
드온은 반드시 죽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성읍 사
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훼파하고 단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라”(30절).

꼼짝없이 기드온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었으니 성읍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 편이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오히려 바알 신을 섬겼던 아버지가 아들 기드온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오히려 기드온 편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대변하였던 것은 단순히 아버지이기때문에 자녀를 구출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의 행동으로 인해 영적인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의 단을 헐어버린 기드온을 대변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바알 신에 의해 그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성읍 사람들에게 "...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 단을 훼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31절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었으며 기드온에게 그 어떠한 피해를 입힐 수 없었습니다. 만일 바알의 단을 훼파하는 일로 인해 바알이 기드온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쪼갰 사건을 통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상을 헐고 쪼개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상에 의해 가려졌던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대변으로 인해 성읍 사람들도 잊어 버렸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훼파 하였으며 바알과 쟁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룹바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기드온이 싸우듯이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과 싸울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상이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며 우상과 싸울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삿 6:33]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

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삿 6:34]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좇고

[삿 6:35]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좇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모두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싸우러 온 것이라기 보다는 늘 하던대로 노략질을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34절 상). 하나님의 신이 임한 기드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였습니다. 기드온의 나팔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에서 모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퍼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은 누구든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나팔을 불어야 하며 자녀를 위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존재하는줄 압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 증거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전해야 세상 사람들도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삿 6:36]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삿 6:37]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

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삿 6:38]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삿 6:39]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삿 6:40]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나팔을 불었던 기드온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 왔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적들과 싸워 볼만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나가 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나팔을 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을 불었던 기드온이 오히려 남들 모르게 나팔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풀이 죽어 버린 것은 그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들어온 '의심'은 '과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실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에 속했으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였고 아버지 요아스의 집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자신의 환경이 눈에 보이고 자신의 신분이 기드온의 마음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신처럼 나약한 자가 결코 쓰임받지 못할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기드온 마음 속에 들어온 '의심'은 결국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시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끝까지 내뱉으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만일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서 나아갔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이 시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드온의 마음에 의심을 뽑아내고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착수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의 첫 시험은 양털에만 이슬이 맺

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시험대로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혔고 주변 땅은 말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드온의 의심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곧 바로 두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주변 땅에는 이슬이 맺히지만 양털만 마르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대로 해 주셨습니다. 주변 땅은 이슬로 젖었지만 양털은 바짝 말랐습니다.

과연 기드온의 시험은 여기서 끝났을까요? 기드온의 '의심'은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당신 스스로 기드온이 되어 본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모습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당신 마음에는 '의심'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의심이 이전보다 없어졌나요? 아니면 이전보다 더욱 많아졌습니까?

미디안 족속

미디안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아카바만의 동쪽 시내 반도의 맞은 편 모압의 남쪽 아라비아 사막 북서부에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유랑 생활을 하였으며 시내 반도에서 요단 동부 계곡과 가나안으로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낙타를 타고서 이동했으며 이들을 가리켜 베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난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창 25장). 성경은 미디안 족속을 가리켜 이스라엘 족속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을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삿 8:24, 창 37:28).

특별히 미디안과 연관되어 중요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낚을 피해 달아났는데 그가 달아난 곳은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두로의 집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출 2:15-출 3:1).

미디안 족속 중에는 겐 족속이 섞여 살았습니다. 겐 족속을 미디안 족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세의 장인은 겐 족속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삿 4:11] 모세의 장인 호باط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미디안 족속은 모압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 신을 섬기며 바알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통간하는 것을 도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이 퍼지도록 도와줬던 족속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당합니다(민 31:1-12).

하지만 모든 미디안 족속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했던 미디안

족속들의 후예들로 인해 사사기 때에 다시금 미디안 족속에게 7년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삿 6장).

사사기 7장 =====

[삿 7:1]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삿 7: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러 나온 백성 중에서 많은 수를 귀가 조치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궁할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궁해질 것을 우려하셔서 백성 중 많은 수를 귀가 조치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을 읽어보면 모인 백성의 수는 고작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정도 수는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합세한 군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 3만 2천 군사는 지극히 적은 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다수를 귀가 조치 시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 자궁할까 염려하셨다고 보다는 기드온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기드온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드온이 믿고 신뢰할만한 군사 수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32,000 명의 군사 중 300명을 제외한 모든 백성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전쟁을 인도해야 할 기드온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300명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기드온 으로서는 도저히 일어설 힘조차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시험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더욱 그러하십니다. 만일 당신에게 기드온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쩌면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갖기도 합니다. 심각한 재정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호되게 사기를 당하여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니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좋지못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필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런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룹바알'은 '바알과 논쟁하다', 또는 '바알에게 대항하다'란 뜻입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쪼개버렸던 기드온을 가리켜 성읍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이룟샘'은 이스라엘 골짜기의 북쪽 길보아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알룟'(Jalud) 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레산'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에 속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치러졌던 이스라엘 골짜기와는 거리가 멀어서 하룟샘 북쪽의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삿 7:3]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일만 명이었더라
[삿 7:4]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끄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끄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모두 귀가 조치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3절 중)고 외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말을 듣고서 돌아간 백성이 무려 2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모여든 백성이 32,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22,000명이 되돌아갔으니 이제 남은 수는 10,000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만 명도 많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4절 상). 하나님은 만 명을 물가로 인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였던 기드온으로서는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32,000명도 부족한데 거기서 22,000명을 되돌려 보내시고 남은 10,000명도 많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속으로 '아니, 도대체 이렇게 적은 수로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지?'하며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의심과 불만이 쌓였을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음성을 잘 듣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든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감정을 못내 감춘채 하나님의 모든 들려지는 음성대로 말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드온은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시험하십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강건해져야만 미디안 사람을 쳐 부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믿음이 약해서는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

을 시험하리라..."(4절 중)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가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줄 몰랐습니다. 기드온 조차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실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시험하실지 이미 마음에 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기드온에게 "...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4절)고 뜻을 박으셨습니다.

[삿 7: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핏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핏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삿 7: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핏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삿 7: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핏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삿 7:8]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
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
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물가로 내려가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서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가 있었고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시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시는 자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서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의 수는 9,700명이었지만 서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는 300명에 불과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을 치르실려고 300명만 선택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서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는 자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에 비해 다소 불안정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는 성격이 보입니다. 저들이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물을 손에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는 이유는 행여나 적들이 쳐들어 올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담대함이 없고 불안하며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들을 선택하셨

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물을 마시는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기드온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기드온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쪽으로만 선택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가신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전쟁이고 뭐가 할 것없이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입에서 "하나님,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란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드온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몰아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흘러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쁨의 미소를 띄시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도저히 싸울 수 없었습니다. 300명으로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적들을 대항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위대한 군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삿 7:9]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삿 7:10]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삿 7:11]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삿 7:12]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종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하나님은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9,700명이 모두 돌아간 후에 곧 바로 적진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진을 치라 명하신 때는 밤이었

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진을 치기 전에 기드온에게 적진을 탐색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이는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32,000명의 군사 중에서 고작 300명만 남겨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다할 원망이나 불평조차 하지 않은 기드온이었지만 적진을 향해 돌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소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적들은 메뚜기의 종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았습니다(12절). 심히 셀 수도 없는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디안 군대 앞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딘들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표적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으로 위해 표적을 마련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아군을 통해서가 아니라 적군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싫어하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 나오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한 자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사용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을 통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안겨준 미디안 사람을 통해 기드온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롬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삿 7:13]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삿 7:14]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삿 7:15]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적진 가운데 이르렀을 때 이미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적군이 꿈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13절)라고 말하면서 "...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14절 상)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14절 하)고 말하였습니다.

적군의 말은 기드온에게 매우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서 셀 수도 없는 대군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과중한 문제였는데 그 모든 문제가 한 순간에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즉시로 이스라엘 진에 돌아와 "...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15절)며 확신에 찬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드온의 심령에 굳건한 믿음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줄 아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적군을 기드온 손에 붙였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9절). 하지만 그 말씀은 기드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심령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믿음이 새겨지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합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 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고백하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

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계획과 같은 계획을 갖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마음과 같은 작정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루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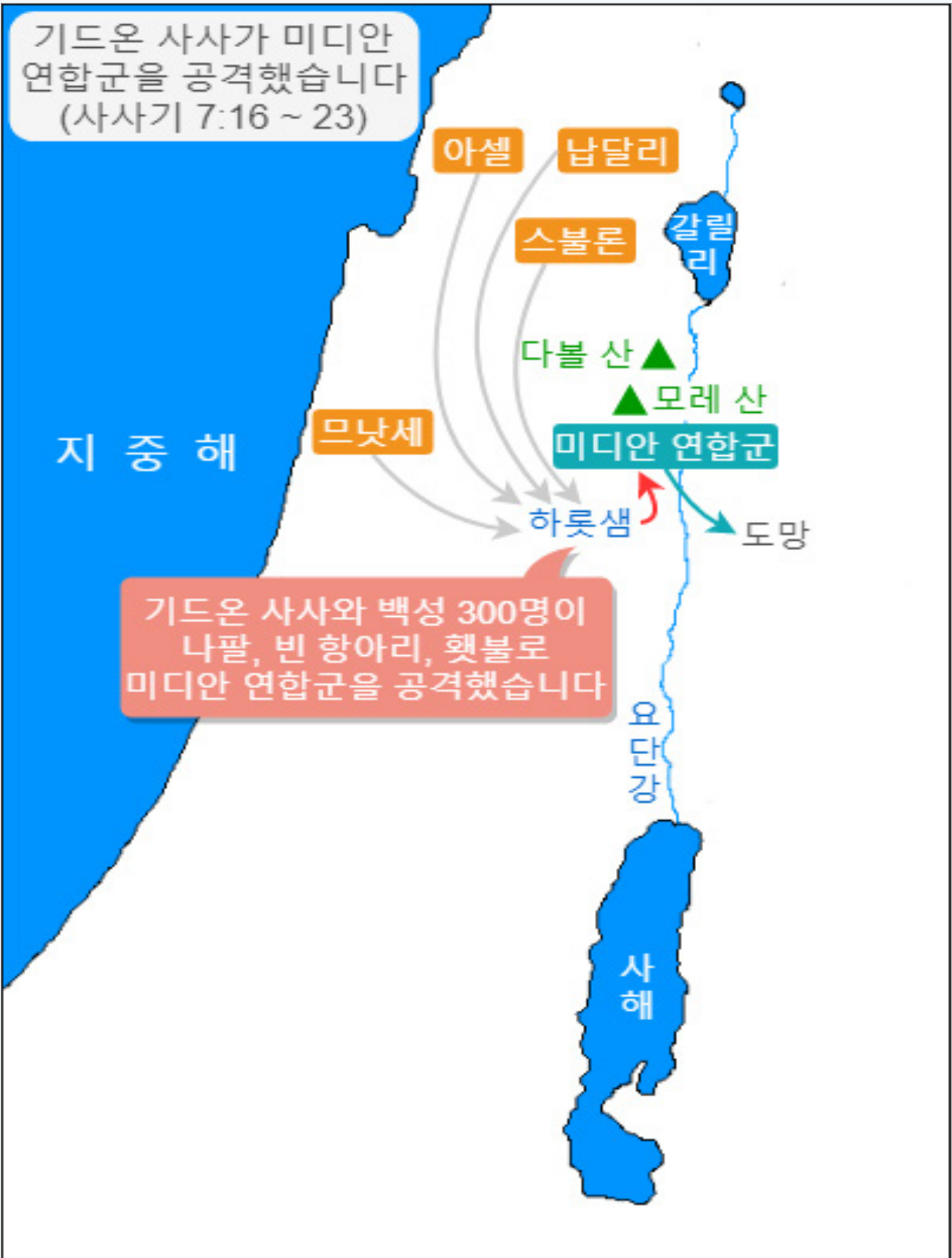
[삿 7:16] 삼백 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삿 7:17]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삿 7:18]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끄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세웠던 전략은 그 어떠한 전략보다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수로 지극히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전략 중 최고의 전략이라 해도 과언이 안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이러한 전법을 알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그의 평생에 전쟁을 단 한 번도 치뤄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몰래 밀을 타작했던 것 뿐입니다.
그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쪼갬을 때



에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밤에 하였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담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3차례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썼

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심한 사람에게 이런 기가막힌 전법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소심한 기드온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뛰어났던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잘 나눌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표적을 구했던 기드온에게 어김없이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날 걸리지도 않았고 수 년씩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 구했으면 내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백성의 지도자 자리에 서 보지 않았던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과 함께 모든 우상을 훼파하고 하나님의 단을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나팔을 건네 주셨고 기드온의 나팔은 온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몰려 왔습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32,000명의 군대를 확보한 것도 감사할 일이었으

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300명의 정예부대를 만드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히 행하였던 기드온은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불과하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그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전법을 알려 주셨고 기드온은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군사이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전쟁을 치룰 수 있도록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항아리 전법'은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중 하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지도자를 통해 가장 위대한 전법이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삿 7:19]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일백 명이 이경초에 진 가에 이른즉 번병의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삿 7:20]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삿 7:21]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달음질하고 부르짖으며 도

망하었는데

[삿 7: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 싯다에 이르고 또
답밧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삿 7:23]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
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은 300명을 각각 100명씩 3개조로 나누었
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100명의 용사는 적
군의 진에 바짝 접근했습니다. 그때는 밤이 늦은 ‘
이경 초’였습니다. ‘이경 초’는 구약시대의 시간 구
분으로 대략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니까 ‘
이경 초’는 대략 10시~ 12시 정도 쯤 되었을 것입
니다. 이 시간은 잠이 깊이 들기 시작할 때입니다.
기드온은 적군이 ‘체번’할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
체번’이라 함은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말합니
다. 아무래도 이때가 제일 외부경계가 소홀할 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가장 먼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나머지 흠어졌던 2개조로 하여금
일제히 진격하라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와 함께 300 용사는 일제히 가지고 있
었던 향아리를 부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팔을
강력하게 불어댔습니다. 향아리 속에 가지고 있었

던 횃불을 치켜 들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과 더
불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들은 "... 여호와와 기
드온의 칼이여..."(20절)라고 외쳤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렇게 행했을 때 미디안 적
군들이 혼비백산 하였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엄청
난 이스라엘 대군이 몰려온줄 알았습니다. 기드온
의 전법은 바로 이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적들로
하여금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전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밤에 공격을 감행케 하셨습니다. 낮에 공격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군사가 아주 적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경 초'에 공격을 감행케 했습니다. 이는 깊은 잠에 들려고 할 때였기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만들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채 우왕좌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몰려온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도록 향아리를 부수게 하였고 나팔을 불게 했으며 소리를 지르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햇불을 밝히게 함으로써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 것으로 보이도록 위장하였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가 한 일이라고는 향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고 햇불을 치켜 든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왕좌왕하며 정신없이 도망치는 미디안 적군으로 하여금 서로 칼날로 치게 만드셨습니다(22절).

이처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에 진격하라면 밤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향아리를 준비하라면 향아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향아리 속에 햇불을 감추라시면 감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시면 불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삿 7:24]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벧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벧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삿 7:25]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엍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엍은 스엍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엍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기드온은 도망치는 미디안 적군을 진멸하기 위해 에브라임 산지 전역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재빨리 군사를 모집한 것입니다. 이는 처음 모집한 군사와는 다른 군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전쟁을 치르려고 모인 군사들의 대부분을 집으로 돌려 보내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

은 기드온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셨지만 두번째 군사들을 모집하신 것은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미디안 적군을 진멸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전역에 사자들을 보내어 군사를 모집하고 도망치는 미디안 적군들을 모조리 진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2차로 징병한 군사들에게 '벧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24절)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요단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디안 적군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철저하게 미디안 적군을 모조리 진멸코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적군(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의 연합군)을 모조리 전멸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적군이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엍'이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25절). 이들은 연합군을 총괄하는 수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로마식의 시간을 따라 24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독특한 시간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약시대 때의 시간과 신약때의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차이를 이해할 때 성경의 시간을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시간

구약시대 때에는 시간 개념이 숫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구약시대의 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경: 해질 때 ~ 오후 10시 (저녁시간)
- 이경: 오후 10시 ~ 오전 2시 (밤중시간)
- 삼경: 오전 2시 ~ 해뜰 때 (새벽시간)
- 아침: 해뜰 때 ~ 오전 10시 (아침시간)
- 오정: 오전 10시 ~ 오후 3시 (낮시간)
- 서늘할 때 : 오후 3시 ~ 오후 6시 (오후시간)

- 저물 때 : 오후 6시 ~ 해질 때 (석양시간)

신약시대의 시간

신약시대의 시간은 저녁과 낮 시간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녁시간은 구약시대와 같이 일정한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대략적인 표현으로만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낮시간은 일정한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약시대의 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밤시간대)

- 저물때 : 해질 때 ~ 오후 10시 (저녁시간)
- 밤 중 : 오후 10시 ~ 오전 1시 (밤중시간)
- 닭 울 때 : 오전 1시 ~ 오전 4시 (새벽시간)
- 새벽 : 오전 4시 ~ 해뜰 때 (동틀무렵)

(낮시간대) :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었습니다.

- 1시 : 오전 7시
- 2시 : 오전 8시
- 3시 : 오전 9시 (제 1 기도시간)
- 4시 : 오전 10시

- 5시: 오전 11시
- 6시: 정오 12시 (제 2 기도시간)
- 7시: 오후 1시
- 8시: 오후 2시
- 9시: 오후 3시 (제 3 기도시간)
- 10시: 오후 4시
- 11시: 오후 5시
- 12시: 오후 6시

사사기 8장 =====

[삿 8:1]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
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이뇨 하
고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화를 냈습니
다. 이유는 왜 자신들을 미디안 전쟁에서 뺏느냐
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말은 사실과 다르니
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 사자들을 보내어
도망치는 미디안 연합군을 전멸하도록 하였습니
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
하여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
다고 불평을 털어놓는 이유는 전쟁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
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같은 사람을 잘 알고 있습
니다. 처음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 나팔을 불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팔소리
를 못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
기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승산없는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

다. 그러나 저들의 예상과는 달리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 당시에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 좁다고 불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 입다에게도 기드온에게 분노했던 것처럼 분노했습니다(사 12:1).

“[삿 12:1]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고질적인 성품은 훗날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놓기까지 했는데 북왕국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왕상 11:26]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늘 자신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울 때는 도망치면서 생색낼 때는 제일 먼저 앞장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을 때는 잠잠히 있다가 건물 건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불평하며 큰 소리치는 사람들... 헌금은 안 하면서 공동의회 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우리들이 볼 때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시겠습니까?

[삿 8:2]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삿 8:3]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옴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은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기드온의 관점은 에브라임 지파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행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간의 갈등이 생기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최선을 다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2절 상)며 기드온 스스로를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2절 하)고 칭찬하였습니다. '끝물 포도'는 '만물 포도'를 얻은 후에 남은 포도 찌꺼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끝물 포도는 만물 포도에 비해 그 가치가 매우 떨어집니다.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끝물 포도'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전쟁 후반전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아바에셀'은 기드온의 집안을 말하는데 기드온이 자신을 가리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라고 표현한 것은 전쟁의 시작이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엿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3절 상)고 치켜 세워줌으로써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는 잠잠해 졌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행동은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임을 증명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사는 이 정도쯤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이런 지도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삿 8:4] 기드온과 그 좃은 자 삼백 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삿 8:5] 그가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삿 8:6] 숙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대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삿 8:7]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찰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삿 8:8] 거기서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삿 8:9]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삿 8:10] 이 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십이만 명이 죽었고 그들을 좃아 거기 있더라

[삿 8:11] 적군이安然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

바와 욱브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
서 적군을 치니

[삿 8:12]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
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
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쉼 없이 미디안 연합군을
추적하였습니다. 기드온은 300 용사를 이끌고 요
단강을 건넜습니다. 쉬지 않고 추적하느라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숙곳에 이르렀을 때 숙
곳 성읍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달라고 요청하였습
니다. 하지만 숙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청을 거절
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드온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이유는
미디안 연합군의 수장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
었기 때문입니다. 행여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몰살 당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갓 지파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보
다 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
람들은 치사한 쪽에 속한 사람이라면 갓 사람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파
는 의로운 사람과 함께 치사하고 비겁한 무리들
도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300 용사를 이끌고서 브누엘로 올
라갔습니다. 기드온은 브누엘 사람에게 먹을 양식

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브누엘 사람들도 숙곳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기드온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였으며 전쟁 후에 돌아와서 반드시 처참하게 죽여 주겠노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숙곳 사람들에게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서 죽이겠다고 맹세하였고(7절) 브누엘 사람들은 저들의 망대를 헐어 죽이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숙곳(Succoth)은 요단 동편의 갓 지파의 영역으로서 압복 강에서 북쪽으로 대략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두 사람 모두 미디안 왕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들은 미디안 연합군의 수령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과의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수장이 두 명이었던 것입니다.

'들가시'는 광야에서 자라는 매우 딱딱한 가시를 의미합니다. '찢으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타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저들을 타작하듯이 처참하게 죽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브누엘'은 숙곳에서 동쪽으로 대략 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역시 갓 지파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브누엘'의 또 다른 이름은 '브니엘'인데 이곳은 야곱이 압복 나루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곳이었습니다.(참 32:30).

기드온은 브누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맹세 하였는데 망대는 성읍의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수꾼이 성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적들의 침입을 관망하고 적들의 침입 시에는 온 성읍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 위험을 알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망대가 헐게 되다는 말은 성읍을 진멸시키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삿 8:13]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삿 8:14] 숙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매 숙곳 방백과 장로 칠십칠 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삿 8:15]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대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삿 8:16]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질러로 숙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삿 8:17]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대략 135,000 명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요단 서쪽에서의 전쟁에서 120,000 명 정도가 죽었고 나머지 15,000 명이 잔류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나머지 15,000명의 잔류병사까지 모조리 진멸하기 위해 추적해 온 것입니다.

잔류병사 15,000명이라 할지라도 기드온의 300 용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군사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300 용사는 그 나머지 잔류병사를 모조리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장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네 손에 주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미디안 연합군을 진멸시켰던 것입니다. 만일 기드온이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전쟁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어쩌면 훨씬 더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했을 것입니다.

[삿 8:18]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삿 8:19]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삿 8:20]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삿 8:21]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기드온은 전장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 고향길로 향했습니다. 고향길로 가는 도중에 숙곳과 브누엘에 들렸는데 이는 기드온이 저들에게 맹세한대로 이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숙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숙곳의 방백과 장로들의 이름을 밝히도록 신문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던 방백과 장로들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방백과 장로들의 명단을 확보한 기드온은 숙곳으로 가서 명단에 적힌대로 모든 방백과 장로들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은 맹세한대로 들가시와 질려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들을 죽인 후에 숙곳 사람들까지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게다가 기드온은 브누엘 성읍의 망대를 헐고 모든 성읍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저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는 너무나 엄청난 저주를 당한듯 보입니다. 기드온이 죽이겠다는 맹세만 하지 않았어도 성읍 사람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숙곳과 브누엘은 이스라엘 갓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 배은 맹세대로 죽여야 했음은 기드온의 헛된 맹세가 부른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며 사람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맹세로 인해 일어나는 좋지 못한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할 말만 하라고 명하십니다. '예'라고 말할 것은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라고 말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라 하십니다. 이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진실에서 더하거나 빼는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진실보다 더하여 맹세를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진실보다 덜하여 맹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왜곡되면 진실이 파괴되어 진실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약 5: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

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삿 8:22]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삿 8:23]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삿 8:24]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삿 8:25]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겹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삿 8:26]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 수가 금 일천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러뒀던 사슬이 있었더라

[삿 8: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

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길 원했습니다. 저들은 "...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22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23절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느껴지는 것은 기드온의 겸손함입니다. 기드온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는 말과 함께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은 다른 지도자에게서 보기 힘든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마치 모세와 같았고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백성들 간의 불화가 없도록 오직 겸손함으로 백성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왕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스스로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그는 실상 왕처럼 행하였습니다. 말과 행함이 달랐던 것

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그를 지켜 보셨습니다. 그의 말과 행함이 같아질 때까지 지켜 보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길 거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미디안에서 취한 귀고리를 취하였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금고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고리를 모으게 한 것은 금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백성으로부터 거둬드린 금의 양은 모두 1,700세겔이었습니다. 한 세겔은 대략 11.4g입니다. 따라서 이는 총 21.38kg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모은 금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성막에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겹옷 위에 걸쳤던 조끼 모양의 옷입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에봇을 입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성한 예배의식을 가로 막은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는 것은 거부하였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기드온은 '금 에봇'을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금 에봇'을 우

상 섬기듯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음란' 하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을 행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금 에봇'은 저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었고 저들로 하여금 음란한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은 아론이 만든 '금 송아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론이 좋은 뜻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기드온이 좋은 뜻에서 '금 에봇'을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바알과 대적한 자였기에 백성들이 그에게 '여룹바알'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줬지만 결국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지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성도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도자는 성도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며 스스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우상 숭배 죄입니다.

[삿 8:28]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사십 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삿 8:29]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삿 8:30]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인이었고
[삿 8:31]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삿 8: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으매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 미디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머리를 누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항상 문제는 태평할 때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사사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은 '음란'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내들로부터 낳은 자녀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또한 첩도 있었는데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명의 첩만 언급했지만 사실상 여러 지역에 첩을 많이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유독 '아비멜렉'의 이름만 언

급한 것은 훗날 아비멜렉이 황위 찬탈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9장 참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다처제를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를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이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러 아내를 둔 것은 모두 '음란' 때문입니다. '음란'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음란이 마음을 가득채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미디안의 칼은 막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란'을 흘러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신 40년이라는 댐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에게 '음란'이 있습니까? 음란한 생각이 당신 마음에 가득차 있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막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당신의 마음에 뿌리십시오. 모든 음란과 연관된 모든 것을 차단하십시오. 음란으로부터 가정을 지키십시오. 음란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십시오. 당신 먼저 음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음란으로부터 해방 됩니다.

[삿 8:33]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삿 8:34]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삿 8:35]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죽자 하나님의 막으신 댐이 터져버렸습니다.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음란'이 걷잡을 수 없이 온 백성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의 욕망을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음란은 단지 사람들과의 음란으로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음란'한 욕망을 사로잡은 것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음란한 백성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바알'의 전공분야가 '음란'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음란할 때 항상 바알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도 바알이 등장해 있습니다. 백성이 음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바알'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이미 음란의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들의 신은 '바알'입니다.

음란에 사로잡힌 백성은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신 앞에서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맺으며 교잡한 짓을 자행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더러운 성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알을 숭배하는 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숭배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34절). 오늘날 사람들이 바알신을 숭배할 때 하나님을 버립니다. 바알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바알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다른 여자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아내를 기억치 못하는 음란한 남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듯 바알을 섬기며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기드온을 기억치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찌 기드온이라고 기억하겠습니까? 기드온을 기억치 못한 백성들은 기드온의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대적했던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여룹바알'이라는 별명까지 받았지만 기드온이 음란으로 바알의 길을 걸어감으로 스스로 여룹바알이라는 옷을 벗어 버렸으니 더 이상 백성들이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룹바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금 에봇'으로 애써 몸을 가렸으니 오히려 '금 에봇'을

통해 백성들이 '바알신'을 바라보았으니 기드온은 백성을 우상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위험합니다. 당신이 걸치고 있는 '금 에봇'을 벗어 버리십시오.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발가 벗었을지라도 부끄럽지 않음은 당신의 허물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 나와 당신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당신의 자녀들을 바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오는 당신에게 주님의 보혈이 덮여질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당신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엡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림과 둠뭉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뭉을 가슴에 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림과 둠뭉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뭉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찌니라.”
(출애굽기 28장 30절)

우림과 둠뭉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걸쳤던 판결흉패 안에 집어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림(Urim)과 둠뭉(Thummim)에 대해 성경은 그 어떠한 지식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뭉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림과 둠뭉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우림과 둠뭉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림>과 <툼림>입니다. 영어 성경도 히브리어 음역을 드래도 음역해서 기록했고 우리나라 성경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

해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우림>은 '불꽃들'이란 '불꽃'의 복수를 의미하고 <툼림>은 '완전함' '성실함' '고결함'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의 역할이 무용지물이었지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때부터는 적어도 포로시대 이전까지에 걸쳐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 27: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좇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처럼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꿈이나 선

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으며 그 외에 우림과 둠뭇을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도 우림과 둠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습니다.

“[삼상 28:6]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이처럼 우림과 둠뭇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탈무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요청하면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뭇을 가슴에 품고서 “예” 혹은 “아니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번에 한가지씩만 요청해야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예, 혹은 아니요”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던지 아니면 가슴에 품은 우림과 둠뭇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방법에 의해 긍정적인 답과 부정적인 답을 알 수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림과 둠뭇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려는 그들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던 구약시대에 비해 너무나 축복된 시대입니다. 특별히 성령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약시대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림과 둠뭇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도구가 없을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화폐 단위 화폐

1) 세겔(Shekel)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세겔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황실에서 사용하는 세겔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세겔과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이 있습니다. 황실에서 사용되는 세겔은 성전 세겔의 두 세배 정도였습니다. 성전세겔이 대략적으로 9.7g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세겔은 그보다 약간 많은 11.4g 정도였습니다.

세겔은 은세겔이 있고 금세겔이 있습니다. 은으로 된 세겔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4일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금으로 된 세겔은 은세겔에 비해 15배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만원을 번다고 하면 은세겔은 40만원이고 금세겔은 60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기 위해 금 600세겔을 지불했는데 노동자 하루 임금을 5만원으로 생각했을 때 대략 18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대상 21:24] 다윗왕이 오르

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대상 21:25] 그 기지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에게 받은 금액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마 26:14] 그 때에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마 26: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은 30세겔은 그 당시 히브리인 중 한 사람의 값에 해당되었습니다. “[출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찌니라”

2) 베가(Bcca)

베가는 반세겔을 의미합니다. “[출 38:26] 조사를 받은 자가 이십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 오백 오십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베가 곧 반 세겔씩이라”

3) 게라(Gerah)

게라는 1/20 세겔(1/10 베가)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계산했을 때 0.57g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성인남성에게 생명의 속전을 성막에 바치라고 명하셨는데 이 때 사용되는 금액은 반 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 세겔은 20 게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생명 속전은 10게라였던 것입니다. "[출 30:13]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찌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찌며"

4) 달란트(Talent)

성경에 달란트라는 화폐단위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달란트는 무게로 약 34kg에 해당되었습니다. 화폐로 사용되는 달란트는 은달란트가 있고 금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금달란트는 은달란트보다 15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금세겔이 은세겔보다 15배 가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은달란트는 3000 은세겔의 가치였습니다. 한 은 세겔의 가치가 일반 노동자의 4일 임금에 해당되었으니 한 은달란트는 무려 12,000일의 임금에 해당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33년 정도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은 한세겔을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은 한달란트는 무려 6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금 한 달란트는 무려 90억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은 금액이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상 29:3]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므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대상 29:4]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천은 칠천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이러한 금액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금액이기때문에 달란트에 대한 화폐가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화폐가치는 그 정확성이 매우 엄밀하고 뛰어나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정확성은 훨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천 년전의 다윗의 시대 때의 화폐 단위는 그 정확성이 더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

니다.

로마와 헬라지역에서 사용되었던 화폐단위

1) 데나리온(Denarius), 드라크마(Drachma)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단위입니다. 이것은 아사리온, 고드란트와 함께 로마 화폐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헬라 화폐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드라크마와 렘돈과 구별되었습니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둘 다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한 세겔은 4 드라크마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유지를 위해 성전세를 냈는데 모세 때부터 반세겔을 내었습니다. 다시말하면 2 드라크마를 성전세로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마 17:24]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 앗사리온(Assarius)

앗사리온은 로마 화폐로서 1/16 데나리온에 해

당되는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5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한 앓사리온은 약 3000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주님은 참 새 두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0: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 고드란트(Kodrantēs), 렘돈(Lepton)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단위로서 1/64 앓사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렘돈'은 헬라 화폐단위로서 고드란트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두 렘돈, 즉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막 12:41] 예수께서 연보 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막 12: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렘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막 12: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한 렵돈이 고드란트의 1/2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렵돈은 한 고드란트의 금액이었습니다. 한 데 나리온을 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고드란트 금액은 대략 780원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두 렵돈은 500원짜리 동전 두 개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을 헌금했다시며 매우 귀한 헌금으로 받으셨습니다.

사사기 9장 =====

[삿 9:1]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삿 9:2]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친임을 생각하라

[삿 9:3]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삿 9:4] 바알브릿 묘에서 은 칠십 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좇게 하고

[삿 9:5]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칠십 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삿 9:6]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인해 그것이 그의 가족에 올무가 되어 결국은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여러 아내와 여러 첩이 있었는데 그 중의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 기드온의 70 아들을 모두 죽인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은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말재 아들 요담만 살아 남을 수 있었습니다(5절).

아비멜렉의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알브릿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비자금을 받아 기드온의 70명 아들을 살해하는데 사람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바알브릿 묘에서 은 칠십 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좇게 하고"(4절)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배다른 형제 70명을 모두 죽였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악독한 자인지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비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골육지친을 한 자리에 모아 일시에 죽였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죄악의 현장입니다. '바알브릿'은 세겜 지역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말합니다. '묘'라는 말은 '신전'을 의미하는데 '바알 신전'으로부터 은 70개를 받은 것

입니다. 은 70개는 은 70 세겔을 말하는데 이는 대략 300g 정도이며 이는 201돈 정도됩니다. 1세겔이 11.4g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마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악을 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때에도 마귀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이 악을 행하는 마음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바알신전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아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죽이기까지는 마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마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끔찍한 악행을 한 숨에 몰아 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하여금 더욱 악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삿 9:7]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겔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삿 9:8]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삿 9:9]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삿 9:10]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삿 9:11]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삿 9:12]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삿 9:13]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삿 9:14]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삿 9:15]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간신히 살아남은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은 아비멜렉을 대적하기 위해 군사를 소집하거나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 보다는 악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요담은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소리를 높이 외쳤습니다. 그리심 산은 세겜 지역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기에는 그리심 산이 가장 좋은 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담이 그리심 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고 할지라도 하여 백성이 요담의 소리를 듣고 뭔가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외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당한 불이익이나 사람으로부터 당한 상처에 대해 하나님께 그 아픈 마음을 털어놓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항변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에 대해 다소 우화적인 내용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를 사용하여 우화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 나무들이 감람나무로 하여금 왕이 되어 달라 요구하였을 때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

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9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11절)라고 말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여러 나무들이 감람나무로 하여금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13절)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 요청했으며 가시나무는 흔쾌히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오히려 “... 내 그늘에 피하라...”(15절 중)라는 헛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시나무는 스스로 다른 좋은 나무들보다 더 능력이 많다 여겼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요담의 이러한 우화는 아비멜렉을 비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삿 9:16]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나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삿 9:17]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삿 9:18]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칠십 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삿 9:19]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룹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삿 9:20]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삿 9:21]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브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요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며 질책하였습니다. 요담이 분노하였던 것은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주었지만 세겜 사람들은 벌써 기드온의 은혜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요담은 은혜를 악으로 갚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요담의 예언은 얼마지나지 않아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세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20절)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를 싫어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짐승만도 못한 자입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십시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십시오.

[삿 9:22]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삼 년에

[삿 9:23]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삿 9:24]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의 예언대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삼 년째에 저의 통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신'은 어떤 특정한 '신(god)'이라기 보다는 '악한 영'으로 하여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의 사이를 훼손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통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아비멜렉을 공격하여 저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에 의해 활동하는 '악한 영'은 아비멜렉의 통치력을 와해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일을 자행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배다른 형제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질 때 그런 악한 사람도 인정해 주고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지

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의인은 형통하지만 악인의 최후는 비참할 것입니다.

“[시 1:6]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삿 9:25]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삿 9:26]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삿 9:27]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삿 9:28]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 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야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 리요

[삿 9:29]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악한 영에 의해 아비멜렉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통치에 공공연하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면서 산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겁탈했습니다. '산들 꼭대기'는 세겜 주변에 있는 산들을 말합니다.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을 비롯하여 여러 산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세겜 사람들이 산 속에 들어가 산적 노릇을 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산적 노릇 행함이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일들을 보고 받을 때 마음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식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가알'이 벌인 항쟁이었습니다.

가알은 에벳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벳'은 '종' 또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알'은 노예출인이나 천민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의뢰하였습니다. 어쩌면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통해 아비멜렉을 대항하려 했던 것입니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기울어진 것을 알고 더욱 신나게 아비멜렉을 욕했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행해진 축제기간이 되었을 때 세

겜은 사람들 앞에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는 차라리 아비멜렉을 쫓기보다는 "차라리 세 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28절)고 말하였습니다. '하몰'은 히위 족속의 사람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 때부터 히위 족속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히위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에도 세겜에 여전히 히위족속이 함께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알은 아비멜렉보다 차라리 이방인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보다 이방인의 자손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알의 말이 세겜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보다 이방인의 자손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마음이 바뀐 것은 아비멜렉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이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어떤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악한 영'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철저히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삿 9:30] 그 성읍 장관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삿 9:31]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삿 9:32] 당신은 당신을 좇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삿 9:33]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은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를 좇은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이 비록 악한 자였으나 그의 장관 스불은 제법 관참은 부하였습시다. 스불은 자신의 상관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자신의 상관에게 충성을 다하였습시다. 스불은 가알의 말을 듣고서 그가 한 모든 말을 아비멜렉에게 고하였습시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아비멜렉을 대적하였음을 고하였습시다.

스불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가알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하였습시다. 밤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일찍이 일어나 가알이 거하는 성읍을 엄습

하면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충성된 부하가 있습니다. 충성된 부하가 하나도 없다면 악한 자가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악한 왕에게도 충성스러운 부하는 많습니다. 이러한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볼 뿐입니다. 자신은 부하이기 때문에 상관에게 오로지 충성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불장관이 아비멜렉의 행실의 악함을 보고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을 마음이 있었다면 아비멜렉에게 충언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불은 오히려 아비멜렉의 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처단하는데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삿 9:34]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눠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삿 9:35]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삿 9:36]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삿 9:37] 가알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 한 때는 므오느님 상수리나무 길로 쫓아 오는도다

[삿 9:38]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관데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의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아비멜렉이 스불장관의 말을 듣고 그를 쫓은 백성들과 함께 밤에 일어나 세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군사를 네 떼로 나눴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읍을 점령하여 가알과 그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함입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가알이 매복하고 있는 아비멜렉 군사를 보았습니다. 가알은 자신과 함께 있던 스불장관에게 아비멜렉이 쳐들어왔음을 고하였으나 오히려 스불장관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가알을 처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마도 스불장관은 가알의 음모에 가담하여 가알의 음모에 대해 모두 아비멜렉에게 전하기 위해 함께 하였던 것 같습니다.

가알은 스불장관이 아비멜렉에게 충성하는 부하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계획을 모두 아비멜렉에게 고해 바치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결국은 그가 아비멜렉에게 패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알은 자신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불장관은 분명 가알에게 접근했을 때 아비멜렉을 싫어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그 밑에서 일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불은 가알의 계획을 염탐하러 잠입했던 아비멜렉의 충신이었습니다. 가알은 스불장관의 정체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가알은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아비멜렉을 헐담했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헐담을 듣고 저주를 들을 때는 함께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사람들 마음 한편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알은 이스라엘 자손보다 이방인 자손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자손이면서 이방인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삿 9:39] 가알이 세겔 사람들의 앞서 나가서 아

비멜렉과 싸우다가

[삿 9:40]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삿 9:41]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삿 9:42]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 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삿 9:43]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떼로 나눠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삿 9:44]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떼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떼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삿 9:45]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가알과 그를 쫓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쫓겨 세겜 성읍으로 피난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곧 바로 세겜 성읍을 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세겜의 왕이었습니다. 어찌하다 왕된 자가 세겜 성읍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는 세겜 성읍을 향해 칼날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마음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자신의 군대의 본부로 삼았습니다. 어쩌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세겜'이 아닌 '아루마'에 다가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 거했던 것 같습니다. '아루마'는 세겜 성읍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성읍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 이번에는 세 떼로 군사를 나뉘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군사는 성문 입구를 향하였조 나머지 두 떼는 밭에는 성읍 사람들을 처단하였습니다. 세겜 성읍 백성들은 '설마, 세겜의 왕이 세겜 백성까지 죽이라?'는 생각으로 성 밖에 나와 밭 농사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세겜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이는 아비멜렉을 향해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자비하게 군사가 아닌 백성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형제 70명을 모조리 죽일 수 있었던 아비멜렉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두 군사 떼가 성 밖에 있는 백성을 모조리 죽일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군사들은 성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쩌면 성 안에는 수비가 소홀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고 아비멜렉 군사는 거침없이 신속하게 공격하여 성읍을 점령

하였습니다. 아비멜렉 군사들은 하루종일 성읍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성읍을 헐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허물어진 성읍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모든 악이 사라지라는 의미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극악한 사람인줄을 모른 채 세겜 성읍을 '가장 악독한 성'이라는 흔적을 보였던 것은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비멜렉처럼 악한 자이지만 본인 스스로는 전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회개만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보혈이 임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를 갖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해 사람이 변화될 때 흔히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기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 같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어머니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회개로부터입니다.

[삿 9:46]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삿 9:47]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의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리매

[삿 9:48]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좇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삿 9:49]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좇아 보장에 대어 놓고 그곳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일천 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세겜 성읍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학살하였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겜 망대로 피신하였습니다. 세겜 망대는 세겜 성읍의 바깥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세겜의 망대에는 천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망대였으며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겜 망대에 모인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그곳을 떠나 엘브릿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브릿 신당은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기는 신당을 말합니다. '엘브릿'은 '바알브롯'과 같은 뜻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겼으므로 바알이 자신들을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보장'은 망대처럼 피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엘브릿 신당의 보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군사들로 하여금 나무를 찍어 가져다가 그곳에 불을 지피도록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명한 것은 나무를 태운 연기로 저들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엘브릿 신당의 보장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는데 자그마치 그 수가 일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해 주는 신입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바알이 풍요로움을 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사람들은 풍요로움으로 인해 음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는 항상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는 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 농사가 잘 되길 원하고 사업농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바램은 곧잘 '바알'신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는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할 때에 바알신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은채 오로지 농사만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모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원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물질 그 이상입니다. 물질이 풍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풍요를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움을 얻지 않고서 세상으로부터 풍요로움을 구하는 사람은 풍요로움을 주관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삿 9:50]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 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삿 9:51]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삿 9:52]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삿 9:53] 한 여인이 맷돌 윗쪽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

[삿 9:54]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삿 9:55]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삿 9:56] 아비멜렉이 그 형제 칠십 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삿 9:57]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인 것에 끝나지 않고서 데베스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이길 원했습니다. '데베스'는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곳 사람들도 아비멜렉에 적대감을 품고서 반항했던 것 같습니다.

데베스 성읍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 망대 안으로 성 백성들이 모두 그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성읍이 점령을 당했을 때 망대가 유일한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세겜은 성 밖에 망대가 세워져 있었지만 데베스에는 성 안에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망대를 불살라 망대 안의 사람을 죽일 계획을 갖고서 자신이 직접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망대에 있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쪽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생각했던 아비멜렉은 황급히 자신의 곁에 있었던 소년에게 칼로 자신을 찌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소년에 의해 죽는 것이 여인의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나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병기잡은 소년'은 아비멜렉을 보좌하는 신복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최후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악한 죄를 갚기 위해 '악한 영'을 보내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과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이러한 보응하심도 깨닫지 못한채 자신을 배

반한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의 피를 흘려 왕위에 올랐지만 여인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악인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은 악인을 높는데 세우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낮은데 거하게 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 봐야 합니다. 어쩌면 마귀는 당신으로 하여금 높아질 수 있다 유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데로 임해야 합니다. 당신이 낮은데 처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마 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사기 10장 =====

[삿 10:1] 아비멜렉의 후에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하여

[삿 10:2]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이십삼 년만에 죽으매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삿 10:3]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삿 10:4] 그에게 아들 삼십이 있어 어린 나귀 삼십을 탔고 성읍 삼십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하봇야일이라 칭하더라

[삿 10:5] 야일이 죽으매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비멜렉의 내란이 있는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부아의 아들 '돌라'였습니다. 그는 잇사갈 지파 사람이었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미디안의 압제 하에 가족이 잇사갈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돌라는 23년 동안 사사의 일을 다하였습니다.

돌라 이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지역을 말합니다. 길르앗 지역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습

니다. 그는 길르앗 지역의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고 전해집니다. 30명의 자녀가 모두 나귀를 탔다는 것은 오늘날 매우 비싼 자동차를 한 대씩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야일에게는 30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각 아들마다 한 성씩 물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야일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사였습니다.

[삿 10:6]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삿 10: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매

[삿 10:8]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십팔 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삿 10:9]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사사 야일의 통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곧장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타락의 시작은 어쩌면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2년 동안 사사 야일의 통치하에 살면서 야일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배웠을 수 있습니다.

야일이 30 성읍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그가 사사로 있으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자신의 30명의 아들에게 각각 비싼 외제 승용차를 한 대씩 구입해 줬다는 것은 그가 사사로서 지나친 사치와 낭비가 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일이 사사되기 이전에 부모의 도움으로 많은 성읍을 유산으로 물려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유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실 때는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만드신 후에 세우실 것입니다. '낮은데로 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인데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법칙을 깨시면서 그렇게 부유하고 사치가 심한 자를 사사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마도 야일은 22년의 사시 기간 동안에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야일 가족의 이러한 사치로 인해 악한 영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일과 그의 가족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와 명예와 사치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야일이 죽고 난 후에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부와 명예와 사치를 즐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멋부릴 여유도 없으니 맘껏 우상을 섬기는데 온 힘과 정성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할 때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자리잡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상에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겼더니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상을 섬길 때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도 높아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습니다. '손에 팔다'라는 말은 적들의 손에 붙였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붙잡은 손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헤치지 못합니다. 악한 세력이 우

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실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되고 맙니다.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지역의 대표 우상입니다. 바알은 남성 신이지만 아스다롯은 여성 신입니다.

'아람의 신들'은 아람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말합니다. 아람 사람들은 대체로 가나안의 헷 족속이 섬겼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들로는 폭풍신인 '아닷'과 '테숏' 그리고 태양여신인 '아린나' 등이 있었습니다.

'시돈의 신들'은 항구도시 시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말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주로 '아스다롯'과 '에쉬문'을 섬겼습니다. '에쉬문'은 두로 사람들이 섬겼던 '멜카르트' 신과 더불어 근동지방에서 많이 숭배되었던 신이었습니다.

'모압의 신들'은 전쟁의 신인 '그모스'가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신들'은 그들의 족속 신은 '몰록'이었습니다. '몰록'은 '말감' 또는 '밀곰'으로도 불려졌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은 그들의 족속 신인 '다곤'이 있었습니다.

[삿 10:10]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삿 10:1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
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
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
느냐

[삿 10:12]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
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삿 10:1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
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
리라

[삿 10:14]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서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압제
하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
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10
절)라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 저들의 요
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너희가 택
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
를 구원하게 하라"(1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하

나눔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상섬김에 의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행동으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더욱 신뢰하십니다. 단순히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에서 저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힘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예의상 회개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형식적으로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회개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직접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삿 10: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
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삿 10:16]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
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
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섬겼던 우상을 모두 버렸습니다. 자신들 가운데 두었던 모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버리다'라는 단어 <수르>는 행동적인 동사로서 '벗나가다', '돌이키다', '떠나다'란 뜻과 함께 '제거하다' 또는 '끝내다'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고 완전히 끝장을 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상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러한 변화에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근심하셨습니다. '근심하다'란 말은 <카파르>로서 '견디지 못하다'란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마음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구원의 손길을 멈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도 간절히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자녀 스스로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기에 저들이 회개하는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삿 10:17] 그 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 치고

[삿 10:18]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향해 군대를 파송하였습
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이나 암
몬의 압제하에 있었으나 반역한 사실로 인해 군
대를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나가 암몬 자손
과 싸울 것인가 결정하면 되었습니다. 막상 암몬
자손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조공 바치는
일을 멈췄지만 암몬 군대가 쳐들어 오자 부랴부
랴 군대를 모집하였던 모습이 역력합니다. 군대는
모았는데 군대를 지휘할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
다.

이스라엘 군대는 서로에게 이르되 "누가 먼저 나
가서 싸울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 그
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18절)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가장 먼저 싸우는 자가 이스
라엘 군대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만
큼 가장 먼저 싸우는 자가 전쟁에서 중요했던 것

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거할 장소로 가나안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며 저들의 악이 관영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저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가나안 우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처럼 우상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세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엘(EL)

‘엘’은 가나안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엘은 모든 신들의 아버지였으며 신들이 모여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을 인도하는 최고의장이었습니다. 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었으며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견주어서 '엘'이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세라(Asherat)

아세라는 '엘'의 아내였습니다. 아세라 여신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신은 나체 여신상으로 만들어져서 주로 바알신과 함께 숭배되어졌는데 이는 바알은 '엘'의 후계자이고 아세라는 '엘'의 아내로서 모든 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왕상 14:15, 왕하 13:6, 대하 31:1, 사 17:8, 렘 17:2).

바알(Baal)

바알은 '엘'의 아들이며 후계자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가리켜 '하늘의 주(Lord of heavens)'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은 '다곤 신의 아들'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다곤'은 곡물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삼상 5장, 삿 16:23). 이스

라엘 백성은 바알신을 가장 많이 숭배했습니다 (민 22:41, 삿 10:6, 삼상 7:4, 왕상 19:18). 바알은 모압인들에 의해 '바알브올(Baal-Peor)' 혹은 '브올'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민 25:18). 또한 불레셋 인들은 바알을 '바알세불(Baal-Zebub)'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란 뜻으로 마귀의 별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마 10:25, 막 3:22, 눅 11:15).

아낏(Anath)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 중에는 아세라, 아낏, 아스다롯이 있었습니다. '아낏'은 '바알'의 누이이며 애인이었습니다. '아낏'의 모습은 정열적이고 흥분스러운 젊은 여성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아낏' 여신에게 바쳐진 남성을 가리켜 '미동' 또는 '남색하는 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왕상 14:24, 왕상 15:12, 왕상 22:46, 왕하 23:76).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낏' 여신을 위해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마련했습니다(왕하 23:7).

아스다롯 (Ashtaroth)

아스다롯'은 '저녁별의 여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렘 44:19). '아스다롯'의 모습은 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아스다롯 여신을 숭배했습니다(왕상 11:5).

못(Mot)

'바알'신이 인간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착한 신이라면 '못'은 사망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악한 신이었습니다(욥 18:13-14). '못'은 '바알'과 싸워 승리하였으나 '바알'의 누이 '아낏'에게 패배한 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낏'은 죽은 '바알'을 살렸고 '바알'은 그렇게 가나안 신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얌(Yam)

가나안 족속에게 알려진 또 다른 악한 신은 '얌'입니다. '얌'은 '못'과 함께 '바알'을 대적했습니다. '얌'은 '리워야단'으로도 불리는데 그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같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임

니다. 주로 사람들은 양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로 바다 깊은 곳에 산다고 여겼습니다. 구약에는 리워야단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며 우리 나라 말로는 '악어'라고 번역되었습니다(시 74:14, 시 104:26, 욥 41:1, 사 27:1).

몰렉(Molech)

'몰렉'은 '밀곰(Milcom)' '말감(Malcham)'으로 불려졌으며 암몬족속의 국가신이었습니다(레 18:21, 왕상 11:5, 왕상 11:33, 왕하 23:10, 렘 49:3, 행 7:43). 몰렉은 황소 머리에 사람의 형상을 띄고 있으며 '몰렉'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신 12:31, 겔 16:20). 모세는 몰렉을 숭배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켰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몰렉'을 숭배했습니다(레 18:21, 레 20:1-5).

솔로몬은 '몰렉'을 위해 신당을 세웠으며 아하스와 므낫세 왕은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왕하 16:3, 왕하 21:6). 요시아 왕은 몰렉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금지시켰지만 오히려 유대 말기 때는 더욱 몰렉 숭배가

왕성해졌습니다(렘 7:31, 겔 16:20-21, 겔 23:3, 겔 23:39). 사사시대 때 입다가 암몬 왕에게 "너희 신 그모스"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모스'가 '몰렉'입니다(삿 11:24).

그모스 (Chemosh)

'그모스'는 모압인의 국가신이었습니다(왕상 11:7, 왕하 23:13, 렘 48:7). '그모스'는 암몬족속의 '몰렉'신과 같은 신으로 '그모스' 신 역시 어린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모스'신을 위해 산당을 건립했습니다(왕상 11:7-8).

다곤 (Dagon)

'다곤'신은 사람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통의 모양을 지닌 우상으로 블레셋인들의 신입니다(삼상 5:2, 대상 10:10). '다곤'은 날씨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기원전 2,500년 전부터서 숭배되어져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서는 곡물의 신으로 섬겨졌던 것은 날씨가 곡물생산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1장 =====

[삿 11:1]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삿 11:2]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삿 11:3]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하나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킴으로 사사로 입다를 세우셨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돕 땅에서 인생의 쓴맛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입다의 마음에는 가족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기생을 어머니로 두었습니다. 그가 기생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은 입다에게 "...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2절 하)라고 말하면서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습니다. 길르앗 지

역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이름도 사는 지역 이름따라 길르앗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혹자는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은 지방 이름을 의인화 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지방 이름과 같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길르앗'은 입다도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다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는 것을 못본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기 보다는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업신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도 업신여기는데 배다른 형제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결국 입다는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입다는 놉 땅에서 살았습니다. 놉 땅 역시 길르앗 지역에 속한 성읍입니다. 하나님은 입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사사로 키우시기 위해 험난한 인생의 길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입다가 알았을까요? 만일 당신이 입다라고 한다면 당신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을 살았을 그였

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을 찾아와 전쟁에서 군대장관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이시면..."(9절 중)이라고 신앙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입다는 놉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그가 군대장관이 되어 암몬 군대와 전쟁을 하였을 때 매우 이성적인 태도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입다로서는 이성적으로 삶을 살아갈 그런 여유가 없었을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가 매우 침착하고도 이성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입다는 놉 땅에 거주하며 살았을 때 '잡류'들이 그에게 몰려 왔습니다. '잡류'는 건달배라고 보기보다는 사회에서 배척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잡류들이 입다에게 몰려 들었다는 말은 입다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아원이나 양로원과 같은 사회복지 사역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입다를 찾아 온 것

은 길르앗 지역에 입다의 명성이 이미 알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을 사람은 그의 인생이 남다른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았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여 부정적인 삶을 살았을텐데 입다는 오히려 좋지 않는 상황을 좋은 쪽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라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입다와 같이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바라보십시오. 언젠가는 그 기회가 옵니다. 입다에게도 임했던 기회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입다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삿 11:4]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삿 11:5]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 오려고 뚝 땅에 가서

[삿 11:6]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삿 11:7]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삿 11:8]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게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길르앗 장로들은 놉 땅에 살고 있는 입다를 찾아가 그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의 판단으로 입다가 군대장관이 되기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을 질책했습니다. 입다는 그들에게 "...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7절)고 야멸차게 대하였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그렇게 대한 것은 사회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길르앗 지역의 통치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을 집행하는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했으면 어찌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느냐는 말입

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정치를 못해서 이 모양이 된 것 아니냐"는 질책인 것입니다.

입다의 이런 질책에 길르앗 장로들은 맘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서 대 놓고 질책을 해대니 누군들 그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길르앗 장로들은 오히려 그렇게 말한 입다에게 아무런 대꾸도 못하면서 오히려 입다가 전쟁에 함께 참여하면 입다를 '길르앗의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8절).

이러한 길르앗 장로들의 제의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의를 내 세운 것은 그만큼 현실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암몬 군대에 의해 길르앗 지역이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장로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할 말을 하였던 입다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 또한 입다처럼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은 세상에 대해 담대해야 합니다.

[삿 11:9]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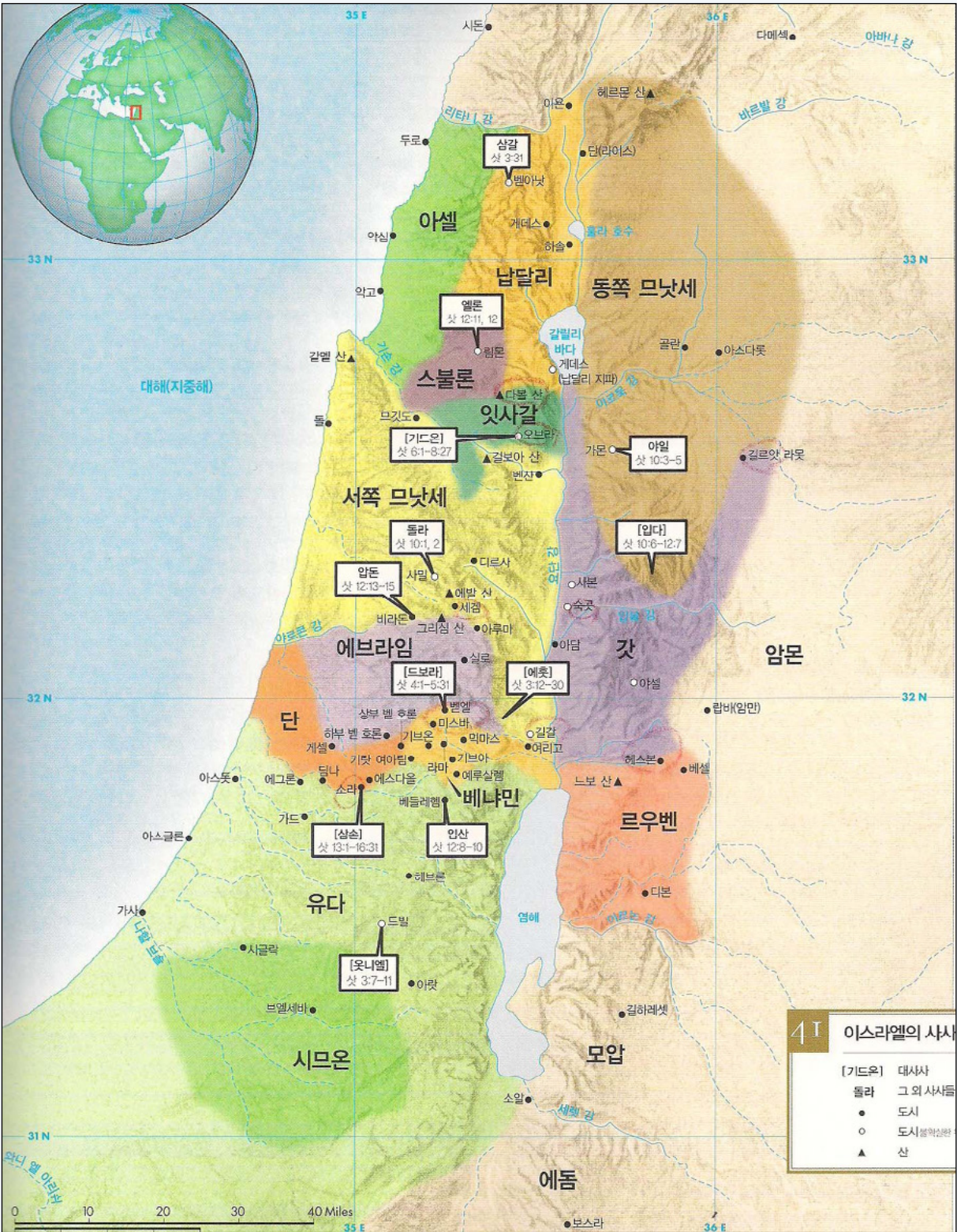
[삿 11:10]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삿 11:11]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입다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길르앗 장로들의 제의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덩싹 저들의 제의를 받아 드린다고 했겠으나 입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저들의 말을 다시금 되물었습니다. "...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9절).

입다의 이런 신중함으로 인해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입다를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만일 입다가 신중하게 행하지 않았더라면 길르앗 장로들이 순순히 입다로 하여금 길르앗 지역의 머리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쩌면 입다의 행동을 좀 더 지켜 보면서 차후에 결정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매우 신뢰할 수 있었던 가정 결정적인 요인은 입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입다는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서 이기게 해 주시면”이라고 말하였습니다(9절). 이는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와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말로써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였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말과 행동이 길르앗 장로들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은 “... 여호와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10절)고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삿 11: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삿 11:13]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삿 11:14]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삿 11:15]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다가 길르앗 군대의 군대장관이 되어 모든 전

쟁을 지휘하였습니다. 입다는 가장 먼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왜 이곳에 와서 우리의 땅을 취하려 하느냐?"(12절)라고 질문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의 사자에게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의 모든 땅을 돌려 받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15절)라고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습니다.

악한 자는 진실을 왜곡합니다. 저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저들 마음 속에 욕심이 있기에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삿 11:16]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삿 11:17]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데스에 유하였더니

[삿 11:18]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삿 11:19]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삿 11:20]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 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삿 11:21]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매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삿 11:22]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역사 중 암몬과 연관된 내용을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9년간의 광야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 하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모든 가나안 정복의 꿈은 출애굽 1년 만에 무너지고 오히려 39년의 세월동안 광야에서 방

황하다가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어린아이만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될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대략적으로 광야 40년이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요단 동편쪽으로 가서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데스바네아에서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는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에돔족속, 모압족속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에돔족속과 모압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돔과 모압 땅을 우회하여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경계를 우회하여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모리족속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모세는 에돔과 모압에게 한 것같이 아모리족속에게도 아무런 다툼이 없이 조용히 그 지역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모리족속은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먼저 아모리 남쪽 왕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남 아모

리의 수도인 헤스본을 점령하고 시혼왕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곧 바로 아모리 북쪽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그곳의 수도인 바산의 왕 옥도 죽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점령한 지역이 이스라엘 2지파(르우벤, 갓)와 반지파(므낏세)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몇 개월만에 점령했던 땅이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까지 점령했던 땅보다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 취했던 다섯 지파(에브라임지파, 므낏세지파, 르우벤지파, 갓지파, 유다지파) 중에 르우벤, 갓, 동쪽므낏세 지파는 이미 모세에 의해 정복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7개의 지파가 열심으로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정해진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삿 11:23]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삿 11:24]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

을 우리가 얻으리라

[삿 11:25]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툼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삿 11: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
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
읍에 거한지 삼백 년이어늘 그 동안 너희가 어찌
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삿 11:27]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
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
대 심판하시는 여호와와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삿 11:28]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한 입다는 암몬 자손
의 왕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
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
냐"(23절)고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네 신 그
모스가 네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
냐..."(24절)며 너희의 신이 얻게 해 주는 땅을 너
희가 차지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모스'신은 모압족속의 신입니다. 그러나 암몬
의 국가신은 '몰렉'입니다. 그런데 '그모스'와 '몰

렉'은 서로 같은 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모압족속의 국가신인 그모스를 암몬 자손의 왕에게 '너희의 신'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알이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25일)고 말한 것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거짓선지자 발람을 불러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란으로 물들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모압은 거의 전멸할 지경까지 전멸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있었을 때에는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 족속 모두 조금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지금 암몬 자손의 왕에게 모세가 살아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을 조금도 건들지 못했던 암몬이 지금은 오히려 거짓말로 우겨대며 자신들의 땅을 달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쾌하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또한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아로엘과 아르논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지 30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고 질책하였습니다.

니다(26절). 그러면서 "...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와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27절)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셨듯이 오늘 이 순간에도 암몬 족속을 물리쳐 주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입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암몬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암몬 자손의 왕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암몬 자손의 왕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거짓을 고하며 자신들의 땅을 달라 요구함으로써 전쟁의 명분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거짓된 일들을 꾸미며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악한 자의 소행입니다.

[삿 11:29] 이에 여호와와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

들에게로 나아갈 때에

[삿 11:30]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삿 11: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드디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험난한 인생의 세월을 보내고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 되었으니 그의 인생에서 처음 가져본 기회였습니다. 입다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던지간에 암몬과의 전쟁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입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실 것을 오래 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할 때에만 한정적으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

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입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생각은 다소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은 서로에게 이익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익이 있어야만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찌 부모가 자녀와의 약속을 맺을 때 이익관계로 맺겠습니까? 하지만 입다는 자신이 무언가 조건을 달아야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해주실줄 믿었던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31절)였습니다. 입다가 이런 서원을 드렸을 때 그의 딸이 가장 먼저 자신을 반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이나 혹은 짐승이 될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마음에는 누군가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전쟁에 승리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쳤을 입다였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혹자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혹자는 성전에 자녀를 드리는 행위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번제'라는 단어는 반드시 '번제' 외에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는 불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로만 번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입다가 왜 '번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좋아하시긴 하지만 사람을 태워 드리는 번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번제 의식은 이방인들에게 행해졌던 의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입다가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이방인 지역에서 오래도록 살다보니 이방인의 문화에 깊게 심취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형제로부터 배척을 받은 후에 수리아 지역의 '돛'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삿 11:3]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돛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삿 11:32]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삿 11:33]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뮌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

하였더라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32절 하). 입다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 성읍을 정복하고 아벨 그라뮌까지 크게 도륙하였습니다. 결국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습니다. '항복하였다'는 말은 무릎을 꿇었다는 뜻입니다.

[삿 11:34]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무남독녀라

[삿 11:35]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삿 11:36]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삿 11:37]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

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
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
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삿 11:38] 이르되 가라 하고 두달 위한하고 보내
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
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삿 11:39] 두 달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
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
운데 규례가 되어

[삿 11:40]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
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그를 반긴 사람은 입다의 딸이었습니
다. 그녀는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입다를 반겼을 때 입다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픔
이 있었습니다. "...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
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35절 상)라고 고백
하였습니다.

전쟁에서의 큰 기쁨이 이내 식어버리고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딸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것
은 저주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을 것입
니다. 그런 저주가 입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

나눔께 서원 한 번 잘 못 함으로써 입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물로도 서원을 해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물이 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람 또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서원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올릴 뿐입니다.

차라리 입다가 "하나님께서 만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신다면 저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좋은 서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짐승으로 드러지는 제사도 아니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 제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향해 있을 때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입다가 세상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영적제사입니다. 영적제사야 말로 살아있는 거룩한 제사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입다가 이러한 살아있는 거룩한 영적제사를 드렸더라면 결코 딸을 불로 태워죽이는 제사로 인한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입다처럼 잘못된 서원을 드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신다면 내 머리를 자르겠습니다"라는 식의 서원을 드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당신 머리카락을 좋아 하시겠습니까? 그 머리카락으로 하나님이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집을 팔아서 모두 헌금 하겠다는 서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탐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어린 제사를 드리십시오. 당신의 서원에 거룩한 살아있는 영적 제사를 드리겠다는 내용을 담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영적제사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입다의 딸은 입다를 닮아서인지 신앙심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온 마음을 다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서원대로 죽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동무들과 함께 산 위에서 처녀로 죽게 되는 고통을 달래기

위해 2개월 간의 시간을 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해마다 그 딸을 위해 3일간 애곡하였습니다.



사사기 12장 =====

[삿 12:1]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가 봅니
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또 다시 입다에게 불
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항상 같습니다.
이전에 기드온에게도 같은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
번에는 입다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만은 "... 네가 암몬 자
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1절 중)였
습니다. 그들은 입다에게 "...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1절 하)고 경고하였습니
다.

이는 지난번 기드온 때(삿 8장)와는 사뭇 더 심한
불만처럼 보여집니다. 기드온 때는 이 정도까지
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저주하며 죽이겠다고 달
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모
습은 악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좀처럼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지 못한채 오히려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 중 하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었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5장에는 요셉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대상 5:1]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เบน의 아들 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대상 5:2]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아비의 첩과 동침을 함으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명분은 유다에게도 넘어갔고 유다지파에게서 다윗왕과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지파는 이 땅에서의 장자일 뿐이고 천국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음을 알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의 12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가 천국의 12지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빼시고 대신 요셉 지파의 이름을 넣으신 것입니다.

요셉지파가 곧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름을 빼신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지파가 곧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지파에는 므낫세지파와 에브라임지파 둘로 나뉘어 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언급된 천국의 12지파에는 므낫세지파와 요셉지파가 거론되었습니다. 원래는 므낫세지파와 에브라임지파가 언급되어야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 자체를 지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막내아들로서 할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아 형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권을 상속했던 에브라임이 어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지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

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항상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함께 땅을 기업으로 얻었을 때에도 자신들의 땅이 비좁다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수 17:14]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이ני이까”

이러한 불만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진 지파를 너무 소홀히 대하는 마음이 들었기에 여호수아에게 그런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소유한 자로서 이스라엘 지파의 본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장자권을 가지고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모습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저들은 에브라임 지파 중 여러보암을 따라 북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북왕국의 건설은 곧 이스라엘의 분열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갈라지던 쪼개지던 상관치 아니하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 영토 내에 있

는 베엘과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단지파 영토의 단에다가 신상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못 내려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왕상 12:28]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왕상 12:29] 하나는 베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에브라임 지파는 단 지파와 함께 천국 “12지파에 제외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상을 섬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가장 열심히 행한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되었을 것입니다.

[삿 12:2]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툰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삿 12:3]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삿 12:4]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삿 12:5]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삿 12:6] 그에게 이르기를 씹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씹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 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

입다는 불만을 토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저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가리켜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4절 하).

저들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대한 진실을 왜곡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었으나 길르앗 사람들을 가리켜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는 거짓말을 들었을 때는 도저히 에브라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아버지 요셉의 공헌을 믿고 의시대기 시작하면서 야곱의 총애를 받아 오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장자지파처럼 의시대며 형제 지파를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입다에게 42,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받을 을 무기삼아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며 스스로 교만한 길을 걷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언젠가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입다는 도망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 요단강을 나루터를 지키고 있다가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찾아 죽였습니다. 요단 나루터이라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는 곳이라기 보다는 수심이 낮아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기는 어렵기 때문

에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수심이 낮은 곳을 찾은 것입니다. 보통적으로 요단강 폭은 대략적으로 30미터 정도나 되는데 수심이 낮은 곳은 1-3미터 정도 내였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입다가 사용했던 방법은 '쉽볼렛'이었습니다. <쉽볼렛>이라는 히브리어는 '흐르는 시내, 개울'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쉬'(shi)라는 길고 강한 시옷(ㅅ)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런 '쉬'(shi) 발음을 하지 못하고 '시'(si)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살'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발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선 입다가 '쉽볼렛'이라는 말로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해 낸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했던 '쉽볼렛'은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발음에 의해 뜻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삿 12:7]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육 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으매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삿 12:8]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삿 12:9] 그가 아들 삼십과 딸 삼십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

는 타국에서 여자 삼십을 데려왔더라 그 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칠 년이라

[삿 12:10] 입산이 죽으매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의 뒤를 이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입산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유다지역과 스블론 지역 두 군데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베들레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론사사가 스블론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다지역의 베들레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산은 기드온이나 야일처럼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을 위해 '타국'에서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또한 딸들을 모두 타국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타국'이라는 <후츠크>는 '외부' 또는 '바깥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외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 바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산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자신의 성읍 안에서 사위와 며느리를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자신의 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자신의 지파 사람 내에서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것이 율법적이며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입산은 오히려

다른 지파 내의 사람에게서 사위와 며느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타국'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외국'을 뜻한다면 그는 이방인 중에서 사위와 며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솔로몬이 수많은 나라에서 첩을 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른바 정략 결혼입니다. 아마도 입산은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사위와 며느리를 이방인 중에서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입산의 행위는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혈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신 7:3]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신 7:4]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깨닫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방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 부인과 부인을 통해 낳은 자녀를 모두 내

보내길 원하였습니다. 에스라 '10장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 113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에스라의 명대로 순종하여 결혼한 이방여인과 자녀들을 모두 내 쫓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정결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어차피 결혼했으면 그만이지 그렇다고 억지로 부인과 자녀들까지 내 보낸다는 것은 너무 냉혹한 행위가 아니냐? "어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혼을 시키느냐?"라는 불평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불평은 '하나님께 정결'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에 의해 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정결과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이방인과 결혼시킬 수 없으며 우리 자신도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과 결혼하여 사는 사람이라 한다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기회를 줄 것입니다.

[삿 12:11]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

렸더라

[삿 12:12]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매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의 뒤를 이어 엘론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사사가 죽은 후에 다른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지역이 모두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사사만 있더라도 외세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사사는 그 지파의 우두머리일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삿 12:13]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삿 12:14] 그에게 아들 사십과 손자 삼십이 있어서 어린 나귀 칠십 필을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팔 년이라

[삿 12:15]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으매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엘론의 뒤를 이어 압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압돈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라돈' 사람이었는데 이곳은 세겜 서남쪽으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압돈은 사사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

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모두 어린 나귀를 타게 했습니다. 어린 나귀는 매우 귀한 것이어서 귀족들이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급 외제 승용차쯤 되는 것입니다.

한때 사사 야일이 자신의 아들 30명에게 어린나귀를 사주고 각자에게 성읍까지 내어준 적이 있었는데(삿 10:4) 압돈 역시 야일의 뒤를 이어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의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방 신을 섬기는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치와 향락은 세상의 정욕입니다. 세상의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대로 살게 합니다. 압돈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왕처럼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철저히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삶과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사사기 13장 =====

[삿 13: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에 의해 40년이나 긴 세월동안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처럼 블레셋에 의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행한 악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 죄였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통해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사사통치 기간동안에 주변 족속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삿 13:2]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삿 13:3]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

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
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삿 13:4]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삿 13:5]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
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
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호와와 사자가 소라 땅에 있는 마노아의 아내
에게 임하였습니다. 소라 땅은 단 지파 내에 있
는 작은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대략
2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라 성읍은
단 지파와 유다 지파 경계선에 놓여져 있었는데
지극히 작은 성읍에 있는 이름모를 여인에게 여
호와와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잉태
할 것이라며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
이 되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의 사자를 통해 마노아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새
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극히 낮고 천하다는 생각을 갖습

니다. 조금도 특별하지 못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알아주시고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작은 영혼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와 사자로부터 희소식을 전해 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희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희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보통 사람들보다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여호와와 사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매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매일 매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호와와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나실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나실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실인 서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사자는 그녀에게 나실인처럼 살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녀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은 그녀가 나실인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로 하여금 나실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실인이 되어야 자식이 나실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않는 환경에서 자식이 나실인으로 자라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더러운 것을 삼가해야 자녀들이 더러운 것을 삼갈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자녀가 당신의 헌신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삿 13:6]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삿 13:7]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삿 13:8]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

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낱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의 아내는 즉시로 남편에게 가서 여호와와 사자를 만났다고 고하였습니다. 그녀는 만난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나 랍비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나 랍비 정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만난 여호와와 사자의 용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의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서 혹시나 죽을까 염려하여 두려워하여 감히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남편에게 여호와와 사자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서 아내의 말이 사실임을 믿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라고 욕박지르거나 황당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노아는 즉시로 하나

님께 간구하였습니다. "...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8절 중)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마노아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모두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일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간구하였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아이를 낳아 기를 때에 어떻게 나실인으로 키울 것인지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노아는 진실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바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삿 13:9]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삿 13:10]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

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삿 13:11]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이까 가라사대 그로라

[삿 13:12]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여호와와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이처럼 두 차례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합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후일에 꿈으로 천사의 방문을 받지만 마리아는 직접적인 방문을 받았습니다. 마노아도 신앙심이 특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를 더 귀한 존재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좋아하신 이유

입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
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의 아내 역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
나님만 사모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기뻐하시며 그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
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삶이 되
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매사에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되신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방문
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금 방문하
였을 때 즉시로 남편에게 달려가 여호와의 사자
가 다시 왔음을 알렸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남편을 끔찍히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입
니다. 어쩌면 많은 여인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
시 방문했을 때 남편 보다는 여호와의 사자에 더
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
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남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
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지 찾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
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

녀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삿 13:13]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
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삿 13:14]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
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
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키라

여호와와 사자는 마노아에게 "...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13절) 지키게 하
라고 명하였습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마노아로 하
여금 무엇을 하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로 하여금 여호와와 사자가 했던 대로
행하라고만 말하였을 뿐입니다.

이런 만남이 어디있고 이런 대화가 어디 있겠습
니까? 사람이 만났으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와 사
자의 관심은 마노아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마
노아의 아내에게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모든 관심
을 기울인 이유는 마노아의 아내의 역할 때문이
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잉태할 것이며
그녀가 애를 낳을 것이고 그녀가 애를 양육할 것
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

인으로 키울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삼손의 어머니가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 중에 어머니의 역할이 큼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자녀를 양육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버지는 가족의 생활을 위해 일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마노아의 가정에 있어서는 그의 아내가 전적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질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와 사자가 유독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실인의 삶을 살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가 책임지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모든 하나님의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14절). 이것은 나실인 서원에 대한 것입니다. 나실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규율을 주셨습니다.

“[민 6:3]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민 6:4]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삿 13:15] 마노아가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삿 13:16]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와 사자인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는 매우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었으며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을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해준 여호와와 사자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코자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는 여호와와 사자를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마노아에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

릴지니라..."(16절 중)라고 따끔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와 사자의 말은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려 하지 말고 그 정성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마노아의 심령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따끔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아내에게 나타났고 그 일에 대해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으며 또 다시 여호와와 사자를 만나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들었던 마노아의 생각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낳을 것이며 어떻게 기를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듣기 원했던 마노아가 정작 여호와와 사자를 만나 모든 간구한 내용을 다 얻었을 때에 모든 감사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마노아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사자는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마땅하다"고 핀잔을 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심도 '사람'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감사를 잘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사람에게 감사를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는 짐승을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매우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람에게 헌신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삿 13:17]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송하리이다

[삿 13:18]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마노아는 자신과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의 잉태한 소식과 장차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듣고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 내 이름은 기묘니라"(18절 하)고 말하였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난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기묘'라는 말은 '기묘자'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묘'라는 말은 <필리> '경이로운', '기이한', '불가사이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묘자'에 쓰이는 <펠레>의 형용사임

니다. 이사야는 예수께서 '기묘자'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께서 아직 태어나기 전이시지만 이처럼 구약 시대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으며(창 17장)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수 5장). 구약시대에는 오직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셨지만 오늘날에는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삿 13:19]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삿 13:20]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삿 13:21]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

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줄 알고

[삿 13:22]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삿 13:23]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여호와와 사자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와 사자도 함께 불꽃 가운데로 좇아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도"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22절)고 말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똑 같이 여호와와 사자를 보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았음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

노아의 아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 중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노아와 같고 또 다른 사람은 마노아의 아내와 같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말씀을 듣고 믿었으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켰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은 회종과 같습니다. 회종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참 경배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경배자는 말씀을 듣고, 믿고, 받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하며 그 말씀을 믿었으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듣고, 믿고, 받

는 것'을 통해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회중'과 같은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믿는다면 그는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자는 의심없이 받아 드려야 합니다. 의심없이 받아드릴 때 진정한 삶의 적용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삶의 적용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진짜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만 들을 때는 하나님이 그저 그런 하나님이시고 주님도 그저 그런 주님의 역할밖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삶 가운데 말씀이 뿌리박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가 말씀을 듣고 믿을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삶 가운데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조금의 의심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심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은 말

숨으로 인해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까지도 받아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말씀을 듣고 믿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삿 13:24]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삿 13:25]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드디어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삼손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이 사사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삼손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면 우리의 자녀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호와의 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곧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성령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삼손에게 '여호와와
신'이 함께 하는 것과 같지만 우리가 삼손처럼 되
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는 '감동'입니다. 성
경은 "... 여호와와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
니라"(25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
오는 '감동'은 <파암>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
의 뜻은 '밀치다', '몰아대다', '재촉하다', '압박하
다', '찌르다', '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
여호와와 신'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삼손 심령가운데 찌르신 것입니다. 삼손으로 하여
금 사사가 되도록 재촉하시며 압박하신 것입니다.
삼손으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으로 나
아가도록 몰아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삼손에게
하신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손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삼손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삼손같지 않기 때문입니
다. 만일 누구든지 삼손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흡
수하는 사람은 삼손처럼 될 것입니다. 삼손의 모
든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 또한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삼손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누가 더 많이
흡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누가 많이 받아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능력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많이 흡수하는 자가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결과 거룩'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정결과 거룩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정결과 거룩이 뭔지 압니다. 그가 정결과 거룩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매우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결과 거룩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삼손과 같이 나실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도 삼손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삼손은 정결과 거룩함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결과 거룩함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결과 거룩함은 능력의 모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질 때 보다 정결해지고 거룩해 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합니다.

블레셋

그들은 누구인가?

블레셋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양민족으로서 그리스 주변의 그레데(Crete)와 에게해의 섬들로부터 남부 팔레스틴 해안 지대로 이주해 와서는 '가나안의 후기 원주민'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은 모두 5개의 성읍(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사와 아스돗에서는 다곤 신을 섬겼고 에그론에서는 바알즈뵘을 섬겼습니다. 블레셋에서는 철기문화가 발달하였지만 본인들의 고유의 문화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으며 자신들의 언어도 잃어버린채 아스돗 방언을 사용하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

블레셋족(Philistines)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적 생활과 중계 무역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노예를 팔아 생계의 일환으로 삼았던 매우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은 BC 11-12세기에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 국가에 대해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지중해를 통해 시돈, 띠로, 비블로스와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얻고자 전쟁하였으며 내륙적으로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영토 전쟁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블레셋에 의해 이스라엘이 40년간 핍박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삿 13: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하지만 블레셋은 삼손 사사를 만나 곤욕을 치르고 그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사울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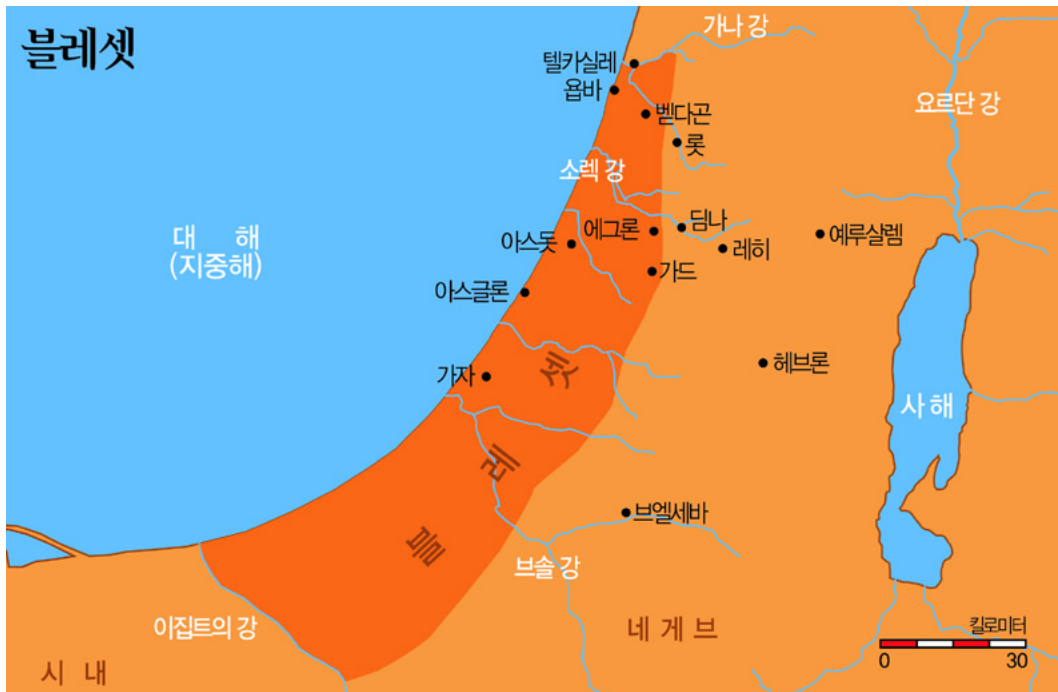
셋은 다윗왕의 기세를 꺾으려 전쟁을 도발하였으나 오히려 다윗왕에 의해 전쟁에서 패하고 그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솔로몬은 이집트와의 정략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이집트 연합군의 세력 확장으로 인해 가운데 끼인 블레셋을 완전히 꺾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은 강대국의 패권 변화에 의해 그 세력이 조금도 크게 되지 못하였고 앗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이스의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의해 완전히 전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과 블레셋의 관계

한국 말로 '블레셋'은 영어로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언어 차이이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름만 정치적으로 블레셋(팔레스타인)이란 말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의 블레셋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서부터 나온 해양 민족이지만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라비아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경의 블

레셋 민족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실인

나실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삼가다' 또는 '스스로를 헌납하다'라는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었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포함하여 독주를 삼가고 술 취하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며 시신에 접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민 6:2-8).

남자 뿐 아니라 여자도 나실인으로 서원할 수 있었는데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에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에는 술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했으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는 물론이고 포도즙이나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술이 정신을 혼미케 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도 술 때문에 정신이 혼

미해져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술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 때에 즐겨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술이 우상숭배를 행하게 하는 유혹의 것으로 취급하시고 술을 금하신 것입니다.

“[민 6: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민 6:3]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민 6:4]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또한 나실인 서원 기간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길러야 했습니다. 머리에는 나실인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것을 나실인의 상징으로 사람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거룩히 유지하고 조금의 흠도 없이 온전히 유

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정결과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삼손은 머리털을 밀어 버렸을 때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복종과 경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머리털을 밀었을 때 생명의 주관자되시고 능력의 주관자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행위였던 것입니다.

“[민 6:5]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또한 나실인은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실인은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해된 것과 죽은 시체는 불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죽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지불

식간에 시체와 접촉할 경우엔 다시 머리를 밀고 서원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부모의 죽음과 형제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민 6:6]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민 6:7]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실인의 영적의미

하나님은 나실인 서원을 통해 가나안 땅의 사악한 우상숭배자들과의 영적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실인은 필요합니다. 나실인이 있어야 마귀의 악한세력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결과 거룩함으로 악한세력을 대적하는 것입

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나실인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일정한 기간에만 나실인으로 서원하였지만 예수님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사셨습니다.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으며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모든 서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나실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세례요한을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명하셨습니다.

“[눅 1:15]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야고보는 바울에게 나실인 서원을 했던 네 사람의 나실인 종료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을 주면서 나실인 서약을 마치라고 명하였습니다.

“[행 21:23]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행 21:24]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

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소 나실인 서원에 대한 기록이 없어 보이지만 나실인 서원이 구약시대의 형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이 형성되어져 왔지만 신약시대에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중심으로 스스로의 성전을 유지해 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실인이라는 어떠한 의식적이고 드러나는 제도보다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형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모두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나실인'이란 말은 오늘날 '거룩한 신부'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로 설명될 때에 구약의 '나실인'이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실인인 셈입니다.

사사기 14장 =====

[삿 14:1] 삼손이 딘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삿 14:2]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딘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삿 14:3]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삿 14:4] 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부모에게 허락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이처럼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한 이유는 블레셋 거민을 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

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4절 하).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의 부모까지 사사로 세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잘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블레셋을 치기 위한 작전으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였지만 그 사실을 부모에게조차 말해 주지 않았던 것은 행여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뱉는 말은 누군가 듣게 됩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더욱 그러합니다. 일단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말을 듣게 될 때 그 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와 연관된 일이나 다른 성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딴지는 단 지파에 소속된 것이었으나 블레셋 족

속에게 넘어간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삼손의 거한 소라 성읍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삿 14:5]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딘나에 내려가서 딘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삿 14:6]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 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삿 14:7]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삼손이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된 여인을 만나러 딘나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삼손은 그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 같이 찢어 죽였습니다. 이 일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염소새끼조차도 찢어 죽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린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일 정도로 힘이 강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삼손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크게 감동되다'라는 원어의 기본형은 <찰라흐>입니다. 이 단어는 '달려들다', '돌진하다', '몰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단숨에 지체하지 않고 어린 사자의 입을 찢어 턱뼈를 부서버렸던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단숨에 순종하십시오. 지체하면 죽습니다. 사자가 달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단숨에 달려가면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습니다.

[삿 14:8]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삿 14:9]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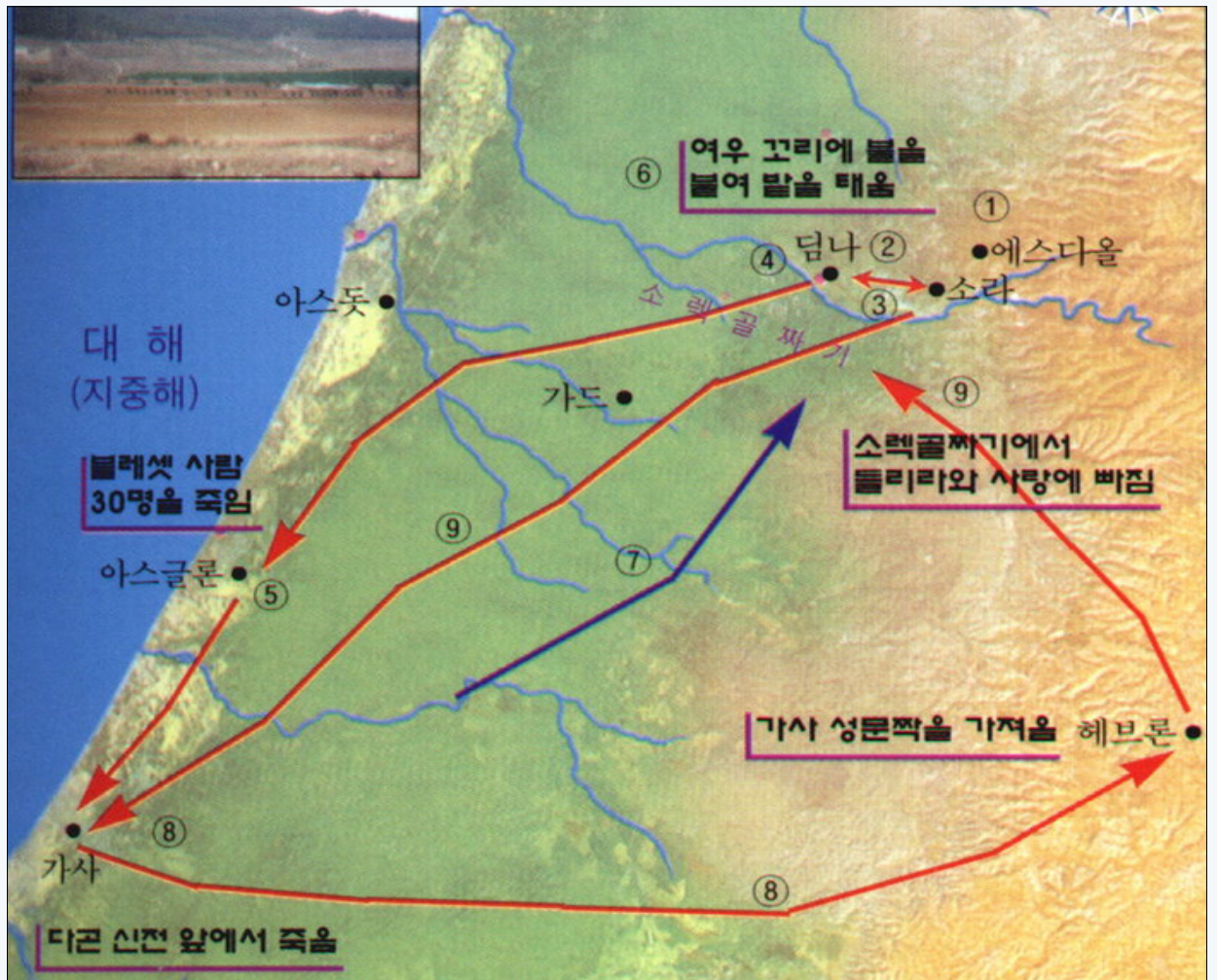
[삿 14:10]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은 얼마 후에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 다시 딘나로 내려 왔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아내

가 될 여인을 설명할 때에 <베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잇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잇사>라는 단어는 부인이나 여성의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만일 그녀가 처녀라면 처녀를 의미하는 <베틀라>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삼손은 의도적으로 처녀가 아닌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녀를 핑계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거민 30명을 죽이고서 그의 아내를 동무에게 넘겨 준 것을 볼 때에 삼손이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삿 14:20]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 되었더라”

삼손은 결혼식을 위해 부모와 함께 딘나로 내려와서 그 여자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닌 블레셋 풍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지참금을 지불한 후에 신부를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족속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삿 14:11]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다가 동무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삿 14:12]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칠 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풀 삼십 벌과 겹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삿 14:13]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풀 삼십 벌과 겹옷 삼십 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삿 14:14]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

느니라 그들이 삼 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결혼을 위해 블레셋 딘나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결혼 풍습에 의해 신랑된 삼손이 신부 집에 가서 그곳에서 1주일 동안 결혼 축하잔치를 갖고서 아내를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블레셋 친구 30명을 사귀었습니다. 친구 30명은 신부의 들러리였습니다. 삼손의 아내의 집은 꽤 부유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젊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었던 것은 신부측이 딘나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 주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삼손에게 삼십 베옷과 겹옷을 줘야 하지만 반대로 저들이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저들에게 삼십 베옷과 겹옷을 줘야 했습니다. 삼손은 저들이 수수께끼를 결코 풀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친구들은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3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삿 14:15] 제칠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

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꺾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삿 14:16]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삿 14:17] 칠 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칠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블레셋 친구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였습니다. 삼손으로부터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오지 못하면 그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삼손의 아내로서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 켠에는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인 자신에게도 말하지 않은 삼손에 대한 불만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삼손에게 수

수σκε끼의 답을 말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삼손은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었습니다. 삼손은 수수께끼를 통해 블레셋 친구들을 보기 좋게 꺾고 싶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블레셋 사람을 꺾고 싶었던 그의 속마음이 수수께끼를 통해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누구에게도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장인 장모에게조차 그 답을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삼손으로부터 수수께끼의 답을 전해들은 그녀는 즉시로 블레셋 친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성경은 "...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17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수수께끼가 단순히 신랑과 들러리 간의 머리싸움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간의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삼손의 아내는 그 일로 인해 자신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미 진행되어가고 있었으니 그녀가 어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삿 14:18] 제칠일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발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삿 14:19]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삿 14:20]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 되었더라

수수께끼의 답은 꿀과 사자였습니다. "...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18절 중). 삼손의 수수께끼는 "...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14절)였습니다. '먹는 자'는 사자를 의미했습니다. 사자로부터 꿀이 나온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친구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자 그 일로 분노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저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음을 깨달은 삼손은 그의 아내에게도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로 가까운 근처 성읍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그들의 베옷과 겹옷을 수수께끼의 답을 풀 친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내마저 친구

들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수수께끼로 블레셋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 줄 마음이었으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30인을 쳐 죽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진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입니다.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니라”

사사기 15장 =====

[삿 15:1]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 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삿 15:2]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삿 15:3]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삿 15:4]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화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화를 달고

[삿 15:5] 화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어서 곡식 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삼손은 다시금 아내를 찾아 갔습니다. 성경은 '얼마 후'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정확히 얼마 만에 다시 찾아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만일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딘다로 내려갔을 때가 포도를 수확할 때였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어린 사자를 죽였을 때 그 사자가 나타났던 곳은
딤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사자가 포도원에 어슬
렁 거렸다는 것은 포도를 음식삼아 먹는 짐승들
이 그곳에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삼손이
포도가 수확되는 계절에 딤나로 내려 갔었다면
그 시기는 대략 9~10월 사이였을 것입니다. 가나
안 땅에서는 주로 이때 무화과나 포도, 올리브 등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다시금 딤나의 아내를 찾아간 시기가 ‘
밀 거둘 때’였기 때문에 삼손이 다시 찾아간 때는
5~6월 사이였습니다. 밀은 이때 수확하기 때문입
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손은 대략 6개월에서 정도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금 딤나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염소새끼를 가지고서 아내의 집을 찾아
갔습니다. 이는 삼손이 아내 집안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빈 손으로 방문하는 것이 실
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아내를 다시 찾
아 간 것은 아내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
내에게 화가 나서 아내를 동무삼은 블레셋 사람
에게 넘겨주었지만 이내 다시 보고싶어진 것입니
다.

하지만 이미 그 아내는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졌
기에 삼손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장인
은 삼손에게 또 다른 딸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라반이 야곱에게 레아를 건네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창 29:15-30). 어쩌면 장인이 삼손을 무서워했기에 삼손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딸을 건네준 이유도 있겠지만 삼손을 사위로 삼고자 하는 장인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처럼 건장한 사위를 얻는다는 것은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장인어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삼손은 "...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3절)고 화를 내었습니다. 삼손은 곧장 나아가 여우 삼백을 취하여서 꼬리와 꼬리를 매고 화를 취하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과 감람원을 불살랐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여우'는 <슈알>로서 '여우'나 '승냥이'를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짐승은 여우라기 보다는 승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주로 홀로 돌아다니지만 승냥이는 집단으로 모여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집단성이 강한 승냥이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잡은 '승냥이' 두 마리의 꼬리를 묶어서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승냥이가 불이 뜨거워 달아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삽시간에 곡식과 감람원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삿 15:6]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딘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 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를 불사르니라

[삿 15:7]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삿 15:8]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삼손의 보복이 끝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삼손에게 퍼부어야 하는데 삼손을 당해낼 재간이 없음을 알고선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을 불로 태워 죽입니다. 이 사실이 삼손에게 전해지자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에담 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한 이후에 '에담 바위 틈'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삼손이 자신의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숨어 살았다는 것은 그로 인해 행여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받았음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삼손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려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자 했던 삼손을 평범한 삶으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점차적으로 자신의 환경이 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한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 사건때문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가운데 있었습니다. 삼손이 다시금 아내를 보고 싶어 딘나로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삼손이 아내 일로 인해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한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슬픈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며 기쁜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로 알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고난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아 올렸던 견고한 진을 부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후 10: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삿 15:9]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삿 15:10]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삿 15:11]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 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삿 15:12]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삿 15:13]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한 사건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 지역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레히에 진을 쳤습니다. '레히' 지역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알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감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의 한 마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잡으려 삼천 명의 군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손에게 쳐 죽임을 당한 블레셋 군사의 수가 일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의 수보다 3배나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삼손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삼천 명의 군사로 블레셋의 일천 명 군사를 대항하였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의 압제하에 완전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나약해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애굽의 노예생활을 했을 때의 나약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담의 바위 틈에 숨어 살고 있는 삼손을 찾아 갔습니다. 그들은 "...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12절 상)고 말하였습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12절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말대로 직접 삼손을 치지 아니하고 다만 삼손을 밧줄로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끌고 갔습니다.

저들이 삼손을 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삼손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고 다만 결박하여 끌고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저들이 실제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분명히 삼손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했습

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동족을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삿 15:14]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지르는 동시에 여호와 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지라

[삿 15: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일천 명을 죽이고

[삿 15:16]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턱뼈로 내가 일천 명을 죽였도다

[삿 15:17]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결박당한채 끌려 나오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마치 큰 승리라도 거둔 것처럼 승리의 환호성을 터트린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삼손을 결박했던 밧줄은 마치 불에 탄 심지와 같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손에 집고서는 그 턱뼈로 블레셋 일천 명을 죽였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는 오래된 뼈보다 훨씬 튼튼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었을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삼손에게는 매우 강력한 무기로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음을 두려워 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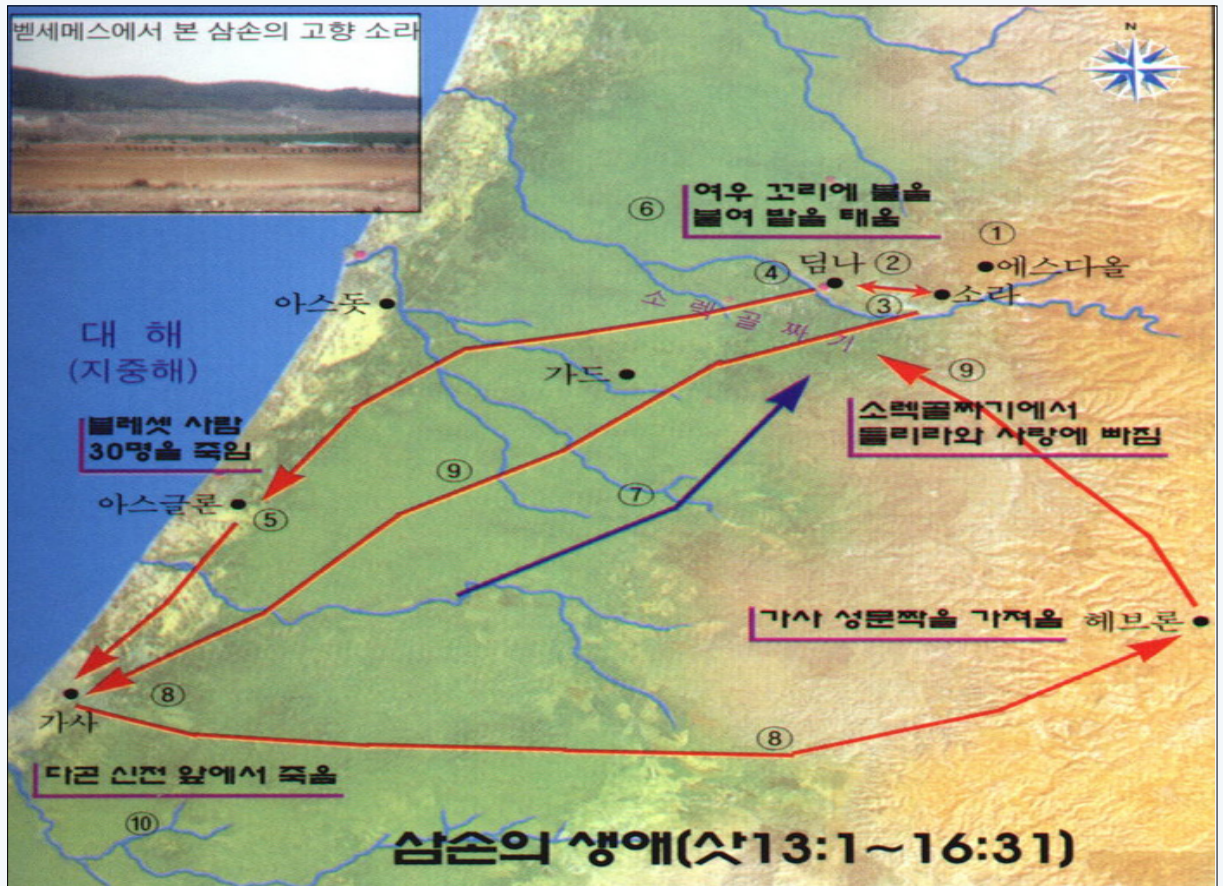
[삿 15:18] 삼손이 심히 목마르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삿 15:19] 하나님이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삿 15:20]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이십 년을 지내었더라

삼손이 블레셋 일천 명을 죽인 후에 심히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 이다”(18절).



설마하니 삼손이 일천 명을 죽이는 동안에 유다 사람들이 물 한 그릇 대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분명 삼손이 혼자서 그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때에 유다 사람들 또한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나귀 턱뼈를 휘두르는 삼손을 위해 뭔가라도 할 일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유다 사람들의 대접보다 하나님의 대접을 원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원함은 사람들이 갖다 준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러한 간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묵한 땅을 터

치심으로 그곳에 샘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엔학고래'라고 불렀습니다. '엔학고래'는 '부르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간구하는 자에게 샘을 터트리십니다.

사사기 16장 =====

[삿 16:1]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삿 16:2]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삿 16:3]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은 레히에서 블레셋 사람 일천 명을 죽인 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도 맘대로 블레셋 지역까지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삼손을 대항하여 싸움을 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사'라는 블레셋 성읍에 거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사'에 머물렀던 이유는 블레셋 여인과 즐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번 삼손의 아내 역시 블레셋 여인이었는데 삼손은 자신의 동족보다 블레셋 여인을 더 좋아했나 보니

다.

삼손이 블레셋 가사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사 사람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여 새벽이 되었을 때에 그를 죽이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될 때 삼손을 죽이겠다는 계획은 그때가 가장 깊이 잠이 드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삼손은 자리에 일어나 가사 성읍문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삼손이 못 지나가도록 성읍문이 굳게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가버렸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대략 60km 정도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가사 성읍의 문짝과 설주와 빗장을 취해 헤브론까지 갔다는 것은 블레셋의 위용이 땅에 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대시대에 성읍의 문은 성읍을 지키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읍문이 없어졌다는 것은 가사 성읍이 수치를 당한 것을 뜻합니다.

[삿 16:4] 이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삿 16:5]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꺾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일천일백을 네게 주리라

[삿 16:6]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삿 16:7]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칩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삿 16:8]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칩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삿 16:9]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칩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삿 16:10]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삿 16:11]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

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삿 16:12] 들릴라가 새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의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 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었다

[삿 16:13]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삿 16:14]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삼손의 삶을 완전히 추락하게 만드는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라는 뜻은 '음탕한' 또는 '연약한'이라는 뜻을 가진 샘족어였습니다. 또한 그녀가 있는 곳이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그리 멀지 않는 소렉골짜기인 것으로 보아 그녀는 아마도 유다 사람일 것입니다. 소렉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대략 2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라, 뎀나, 레히 모두 소렉골짜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여느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들릴라에게도 접근하였습니다. 만일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알아낸다면 은 일천일백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은 한 세겔이 4일 품삯에 해당되기 때문에 은 일천일백개는 보통 사람들이 10년 동안 벌어드리는 정도의 값어치나 되는 매우 큰 돈입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손으로 하여금 힘의 근원을 말하도록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일곱으로 결박하면" 약해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손이 이처럼 거짓을 고한 것에는 과거 자신의 아내에게 진실을 고했다가 낭패를 봤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삼손이 고하는 말마다 들릴라가 그 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말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하며 힘의 근원을 캐물었습니다. 삼손은 "쓰지 아니한 새 줄로 결박하면"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의 머리털 일곱 가

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속되어진 삼손의 거짓말에 들릴라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화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들릴라는 삼손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들릴라는 삼손 앞에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악한 자는 강한 자 앞에서 약해지지만 악한 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법입니다. 삼손은 강한 자였으나 들릴라에게만큼은 약한 자로 섰습니다. 그랬더니 들릴라가 강한 자가 되어 삼손을 집어 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강한자로 세우셨지만 삼손 스스로 악한 자 앞에 약한 자로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를 약한 자로 만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기 위한 계책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지라도

결코 그런 문제들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들을 향해 담대하게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담대하게 들릴라에게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만 했습니다. 담대하게 들릴라의 품에서 얼굴을 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들릴라의 품이 좋았고 그 품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삿 16:15]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삿 16:16]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삿 16:17]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삼손의 죄는 단순히 일상생활 가운데 저지르는 죄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보통 지도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최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들에는 여러가지 많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좋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요구되는 사항 중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삼손은 이미 나실인으로서의 금기사항을 많이 깨뜨렸습니다. 그는 취해서는 안 될 여자도 취했습니다. 술도 마셨습니다. 이방인 여인도 취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지은 죄를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삼손의 지은 죄로 인해 삼손을 가뉘둔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삼손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의 비밀을 얘기한 순간 하나님은 삼손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라지는 순간에 하나님도 잘라지신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여인에게 공개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켜 보셨듯이 지도자들의 죄도 지켜 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인내하십니다.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 있지만 지도자로부터도 떠나십니다.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할 경우엔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며 잊어서도 안 됩니다.

[삿 16:18]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삿 16:19]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삿 16:20]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삿 16:21]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낚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들릴라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 힘의 근원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말대로 그의 머리카락을 모두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뽑고 눈줄로 그를 메고선 그로 하여금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삼손은 설마하니 자신의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었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빠질 것이라고 들릴라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생각대로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머리카락이 모두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삼손의 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삼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실 줄은 꿈에도 생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음을 의미

합니다. 이처럼 성령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나실인의 비밀을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만 떠났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됩니다. 한 번의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해당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발짝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의 능력도 한발짝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삿 16:22]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삿 16:23]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삿 16:24]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삿 16:25]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삿 16: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삿 16:27]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삿 16: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삿 16:29]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꺾어 의지하고

[삿 16:30]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삿 16:31]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이십 년을 지내었더라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손에게는 예전처럼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령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노리개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그가 블레셋 사람의 노리개가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였습니다.

삼손은 그의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에 지키고 있는 소년에게 자신을 두 기둥 사이에 서게 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하나님께 다시금 힘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의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시금 힘을 얻은 삼손은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는 기둥을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둥이 부서지고 건물이 무너져 그 집의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건물에 덮여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최후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고 말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몫을 다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선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쓰임받게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될 때 블레셋이라는 대적을 만나 두 눈이 뽑히고 대적의 노리개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수모와 학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

[삿 17:1]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삿 17:2]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일천일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삿 17:3] 미가가 은 일천일백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삿 17:4]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이백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삿 17:5]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삿 17: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과 18장의 이야기는 사사에 대한 것

이 아닙니다. 단지 사사기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돈 은일천일백 세겔을 훔쳤는데 다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은 일천일백 세겔은 대략 10년 정도의 임금이었습니다. 은 한 세겔의 가치가 일반인의 4일 품삯이었으니 대략 4,400일의 품삯에 해당되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돌려준 것은 어머니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로 인해 자신이 저주 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미가가 어머니로부터 훔친 돈을 돌려주자 어머니는 미가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2절 하)며 미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은 이백 세겔을 떼어서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신상을 만들 때의 모습을 자세히 드러다 보면 그녀의 죄악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3절 하)며 다시금 그 돈을 미가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는 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한 신상을 만들라는 것

입니다. 그녀가 그의 아들 미가에게 은 일천일백 세겔을 모두 준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신당을 세웠습니다. 신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겼는지라 아예 에봇까지 만들고 게다가 드라빔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 중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행한 죄악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돈을 그의 자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면 성전에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살고 있었던 가까운 지역에 실로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실로 성전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로 성전에 가지 않았던 것은 그 재물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서 신당을 짓고 신상을 세우는 것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는 생각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을 가지고서 마치 자신의 것인양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헌금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양 쓰고 싶은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이 자신의 돈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6절).

저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이였슴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저들 눈이 세상의 왕만 바라봤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신줄도 알지 못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세상의 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왕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왕은 하나님과 대치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왕이 사라지게 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심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 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면 자식에게 그 재물을 드린 미가의 어머니 역시 거짓말의 대가였습니다. 그녀는 좀 더 솔직해져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 많은 재물을 실로까지 가서 성전에 드려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 재물로 차라지 자신의 집에 신당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 재물이면 충분히 신당을 세울 수 있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삿 17:7]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삿 17:8]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삿 17:9]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삿 17:10]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삿 17:11]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삿 17:12]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삿 17:13]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유다 가족에 속한 한 레위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던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레위인 소년

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정처없이 헤매었습니다. 자신이 거주할 장소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왜 레위인 소년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혹자는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통치하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17장과 18장 전체를 통해 볼 때 이 레위인 소년은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는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를 만났습니다. 미가는 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신당의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입고 쓰는 모든 경비를 대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10절)

레위인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은 미가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신당을 세우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형제가 제사장 노릇을 해 온 것이 맘에 석연찮은 느낌을 주었는데 정통 레위인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미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복이 마구 쏟아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13절)

자신의 맘대로 신당을 세우고 그곳에 신상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면서도 조금도 죄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았던 미가가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당에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이 죄악을 어찌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것인가.

자신의 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미가도 잘못이지만 자신의 살 길을 찾겠다며 덩석 기회를 물은 레위인 소년도 잘못이었습니다. 분별없는 미가가 족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레위인 소년만큼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죄악이 만연되어 있음을 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렸고 백성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죄악이 “이 땅에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왕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백성이 왕 앞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있긴 해도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백성들 눈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전혀 가치가 없는 세상...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왕
으로 존재하지 않는 세상...

에봇(ephod)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봇을 입고 싶다고해서 만들어
입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출 39:1]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
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
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
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출 39:2]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출 39:3] 금실을 얇
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출 39:4]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
아 서로 연하게 하고
[출 39:5] 에봇 위에 에
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
늘게 꼰 베실로 에봇에
붙여 찢으니 여호와께
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
로 하였더라”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교만하여져서 '금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가게 했습니다.

“[삿 8: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
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에봇을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드신 것은 에봇은 거룩한 옷이었기 때문

입니다.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금실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짚습니다(출 39:3).

에봇에는 에봇 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허리띠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재질은 에봇의 재질과 같았습니다. 에봇띠는 에봇과 붙어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에봇에는 어깨에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였으며 에봇 띠를 만들어 에봇에 붙어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옷에는 견대가 달려 있었습니다. 견대에는 호마노 보석 두 개를 달았는데 그곳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연치대로 각각 여섯 이름씩 보석에 새겼습니다. 한쪽 보석에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가 새겨졌으며 다른 한쪽 보석에는 갓, 아셀, 잇사갈, 스블론, 요셉, 베나민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출 28:9] 호마노 두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



들의 이름을 새기되 [출 28:10] 그들의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출 28:11]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출 28:12]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하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의 에봇 견대에 이스라엘 이름을 모두 새기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18장 =====

[삿 18:1]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 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삿 18:2]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피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삿 18:3]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삿 18:4]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삿 18: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삿 18:6]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직까지 단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까지 오직 5개 지파만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을 뿐입니다. 요단 동쪽으로 므낫세지파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요단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얻었을 뿐입니다. 나머지 7개 지파는 아직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저마다 지파 별로 땅을 기업으로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단 지파도 아직까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들의 땅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단 지파의 경계는 '소라'와 '에스다올'입니다. 이들 성읍은 유다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대략 65km 떨어져 있었고 에스다올은 소라에서 동북쪽으로 대략 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 지파는 '소라'에서 '에스다올' 사이에서 용맹한 다섯 용사를 선택하여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였습니다.

다섯 용사는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살필 때에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미가가 세운 레위인 소년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다섯 용사가 레위인 소년의 음성을 알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3절 상). '알아 듣다'라는 말은 <나카르>로서 '주목하다', '분별하다'란 뜻 외에 '~와 아는 사이이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용사와 레위인 소년은 그 이전에 안면이 있는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용사는 레위인 소년에게 "...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3절 하)고 물었습니다. 다섯 용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레위인 소년이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녔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말은 그가 이익에 의해 머물 곳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레위인에게 상당히 무례한 질문이었지만 그들의 질문을 통해 레위인 소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어디든지 머무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용사는 레위인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5절)고 요청하였습니다. 레위인 소년은 그들에게 "... 평안히 가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6절)고 덧붙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걸음을 지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미가에 의해 고용된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용사는 레위인 소년이 들

려준 말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힘을 얻습니다.

[삿 18:7]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함이라

[삿 18:8]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삿 18:9] 가로대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삿 18:10]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삿 18:11] 단 지파 가족 중 육백 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삿 18:12] 올라가서 유다 기랴여아림에 진 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 곳은 기랴여아림 뒤에 있더라

레위인 소년의 말대로 다섯 용사의 가는 길에는 평탄함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라이스'에 이르러 그곳이 너무나 좋은 땅임을 알았습니다. 그 땅은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며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으며 시돈과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시돈이 라이스에 대해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이스는 시돈의 통치권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시돈은 동서 교역의 중개지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라이스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편안했기 때문에 일부러 신경 써서 라이스를 경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돈과 라이스는 거리적으로 너무나 멀기 때문에 시돈의 간섭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단 지파가 라이스를 공격할지라도 시돈이 전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이스는 지역적으로 헬몬 산에 가려 있기 때문에 아람과 단절되어 있어서 외세의 침입을 받을 염려가 없는 매우 안전한 곳이었으며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물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라이스 사람들이 태평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취하기에 매우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다섯 용사는 서둘러 단 지파 사람들에게 돌아와 모든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바로 취하러 나아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 사람들은 설불리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용사는 "...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9절 중)며 단 지파 사람들의 게으름을 질책하였습니다. 결국 단 지파 사람들은 600명의 군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아무리 땅이라 할지라도 겨우 600명의 군사만을 파송한 것은 얼마나 단 지파 사람들이 전쟁하기를 싫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라이스 주민들이 경계를 바로 했다면 아마도 단 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를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 지파의 이러한 게으름은 저들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저들은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삼손이 단 지파 사람이었는데 삼손만 보더라도 얼마나 단 지파 사람들이 안일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게으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복들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려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복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시 126: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삿 18:13]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삿 18:14]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
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만든 신상이 있
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
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 지파는 기랴여아림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유숙했
습니다. 기랴여아림에서 미가의 집까지는 대략
2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
이 라이스로 떠날 때에 그들의 가족과 짐승도 함
께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20km 정도라 할지라도
노녀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숙할 곳을 찾았을 것
입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공격을 위해 군사만 보
낸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해 가
족과 가축을 함께 동반토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라이스를 정령한 후에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지파는 유다지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라이스를 중심으로 그 일대 또한 단지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지파 또한 므낫세 지파처럼 두 군데로 나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이스로 떠난 사람들 중에 라이스 땅을 탐지했던 다섯 용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미가의 집에 산당이 있음을 기억하였고 함께 온 군사들로 하여금 미가 산당의 것들을 취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다른 군사들에게 "...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14절 하)고 말하였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은 율법이지 도적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미가의 산당의 물건을 취하는 것에 대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들이 악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자신의 것도 아닌 물건을 탈취하는 것에 대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규정한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

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삿 18:15] 다섯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삿 18:16] 단 자손 육백 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
구에 서니라

[삿 18:17]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
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육백
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삿 18:18]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삿 18:19]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
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
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삿 18:20]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
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
가니라

600명의 군사들은 미가의 신당을 지키고 섰습니

다. 왜냐하면 미가에게도 적잖은 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집안이 신당을 세울만큼 상당히 권력가이면서도 재력가였기 때문에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한 군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600명의 군사를 세워서 철통같은 수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미가의 신당을 방문한 다섯 용사를 만난 레위인 소년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아마도 레위인 소년은 그들이 산당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산당 내의 물건을 취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18절 하)며 저들을 가로 막았습니다.

그들은 제지하는 레위인 소년에게 오히려 "... 잠잠하라" 말하며 "네 손을 입에 대라"고 경고하였습니다(17절). 이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년에게 "...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19절)고 제의했습니다.

레위인 소년은 저들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20절 상). 그

는 곧 바로 그들과 함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여 단 지파에 합류하였습니다. 마땅히 레위인 소년은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는 미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켜야만 했지만 더 좋은 계약이 들어왔을 때 이전의 계약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저들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저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삿 18:21]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삿 18:22]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삿 18:23]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낮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삿 18:24]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를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

이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나 하느냐

[삿 18:25]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삿 18:26]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신당 물건을 취한 후에 라이스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신당 물건을 취한 이유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라이스를 정복한 후에 그곳에 신당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신당에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인 소년을 함께 데려간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이러했기 때문에 가족과 가축도 함께 동반하였던 것입니다. 굳이 전쟁을 하려 갔다면 가족과 가축을 함께 동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라이스 성읍을 정복한 뒤에 그곳에 정착을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야심에 의해 하나씩 일을 이뤄 나간 것입니다.

단 지파 사람들에게 의해 신당의 물건들을 도적질당한 사실을 알아차린 미가는 그 이웃들과 함께

단 지파 사람들을 제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길을 막는 미가 사람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하고 미안스러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 지은 단 지파 사람들이 더 당당하였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빼앗긴 미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단 지파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내 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 사람들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할 때에 마치 승리자의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 보신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중에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행에 대한 형벌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만 보기 때문에 악행을 행해도 그 악행으로 인해 자신에게 형벌이 되돌아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간에 반드시 저들의 악행에 대한 형벌을 내려주십니다. 단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을 이해

해야만 했습니다.

[삿 18:27]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삿 18:28]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흙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종건하고 거기 거하며

[삿 18:29]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삿 18:30]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삿 18:31]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를 점령했습니다. 라이스 백성들이 워낙 전쟁의 준비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들을 몰살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라이스 성읍을 정복한 후에 그 성읍 이름을 '단'이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온 가족들과 함께 성읍을 중건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호수아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 19:47]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위 구절에 언급된 '레센'이 곧 '라이스'입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외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북쪽 라이스를 점령했던 것입니다. 단지파는 신당을 세워 미가 신당에서 빼앗아 온 것들로 신당을 꾸몄습니다. 성경은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30절 상)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신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신상을 세우는 것도 큰 죄이건만 저들은 아예 자기들의 안녕을 위해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성경은 "...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30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 저들을 위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바로 레위인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레위인 소년이 바로 모세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의 손자라면 당연히 모세의 법을 잘 알았어야 하며 모세의 법대로 따라야 하건만 어찌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는 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모세의 강철같은 믿음이 불과 3대째에 녹아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모세.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했던 모세였는데 그 자손들이 모세의 뒤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들이 타락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도 타락했으며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또한 타락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라고 해서 당연히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일수록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대한 지도자의 그늘에 갇혀 사는 자녀들은 뼈땀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그늘 보다는 위대한 지도자의 빛과 함께 자녀들이 생활을 할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단 지파의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

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단 지파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을 세우고 단에다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 지파가 그곳을 우상의 본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이 그곳에 근원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단 지파의 죄악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지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12 지파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단지파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이 땅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서 천국에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단 지파는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도 없습니다. 이제 단 지파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혹자는 단 지파가 대한민국의 조상이다란 말을 합니다. 단군 조상이 바로 단 지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 지파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 대한민국이 단 지파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백성입니다. 지금도 저주를 받고 앞으로도 저주를 받을 백성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저주 받는 백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 지파로서 천국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단 지파

처럼 우상이나 숭배하고 저주 받는 그런 민족은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 19장 =====

[삿 19:1]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삿 19:2]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의 날을 보내매

[삿 19:3]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필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에 흐르고 있는 주된 요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비참한 현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레위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저자가 '레위인'을 통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내용을 극대화시키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시다'란 뜻을 반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

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이 훨씬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만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뜻으로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행음하다'란 말은 <자나>로써 <나아프>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나>는 이성간의 성관계를 의미하지만 <나아프>는 배우자 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레위인의 첩이 행음했다는 사실을 말할 때 <나아프>를 사용하지 않고 <자나>를 사용했을까요?

사사기 저자가 레위인의 첩이 행음했다는 사실을 <자나>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는 레위인의 첩의 행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간음'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죄를 의미하기 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음한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프>가 아닌 <자나>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자나>라는 단어는 '매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받고서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으로부터 돈을 받고서 우상에게 몸을 팔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레위인이 그런 더러운 행음을 행한 첩을 데리러 첩의 집을 찾아간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호세아가 매춘 행각을 벌이는 아내 고멜을 사랑함으로써 그녀를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인은 주님을 상징하며 행음한 첩은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음 하였던 첩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들이 이전의 죄악된 상태로 빠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둠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빛으로 건지기 위해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삿 19:4]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리매 그가 삼 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삿 19:5]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삿 19:6]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

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
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삿 19:7]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
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삿 19:8]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고자 하매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
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삿 19:9]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
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
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
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삿 19:10]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
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첩의 장인은 사위 레위인에게 삼 일을 그곳에 유
숙하라고 권하였습니다. 레위인은 첩 장인의 말에
따라 그곳에 삼 일을 유숙하였습니다. 나흘 째에
떠나려 하였지만 다시금 첩 장인이 레위인을 붙
잡는 바람에 하루를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 다섯째 날에도 계속해서 첵 장인이 레위인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다가는 오래도록 이곳에 머물겠다는 생각이 들은 레위인은 다섯째 날 저녁에서야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지만 해가 저서 멀리 갈 수 없는 상황에 길을 떠난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침에 떠났더라면 좀 더 침착하게 여행 일정을 계획하여 안전하게 에브라임 산지로 되돌아 갔을텐데 너무나 급하게 떠나오는 바람에 여행길이 다소 불안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첵 장인이 발목을 붙잡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발목을 붙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부모가 발목을 붙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릿다운 여인이 발목을 붙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 발목을 빼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들을 붙잡고 있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살며시 붙잡은 발목을 내어 줍니다. 발목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기 때문에 이렇듯 발목이 빠져 나오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다시금 더 강력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적절한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하고 행동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레위인은 보다 침착해야만 했습니다. 첵 장인이 삼 일을 유숙하고 가라고 했으면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 일동안 유숙하면서 어떻게 에브라임으로 다시 돌아갈지를 상세히 계획을 짜야만 했습니다. 첵 장인이 좀 더 머물라고 간청했을 때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획한대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이끌리거나 정에 얽매일 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구하면서 행동했더라면 아마도 그는 무사히 에브라임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삿 19:11]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삿 19:12]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

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삿 19:13]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삿 19:14]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레위인은 첩과 동행하는 하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급히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베들레헴과 여부스와의 거리는 대략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걸어서 대략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무나 늦게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워졌을 때 이미 해가 지려했습니다.

레위인의 종은 여부스에서 하룻밤 유숙하고 길을 떠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에서 유숙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부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부스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는 여부스족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는 대략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대략 1시간 반 이내로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부스를 떠

날 때에 이미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들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삿 19:15]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
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
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삿 19:16]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
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
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삿 19:17]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
며 어디서 왔느냐

[삿 19:18]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
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삿 19:19]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짚과 보
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
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
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삿 19:20]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삿 19:21]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레위인 일행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유숙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아 성읍 거리에 앉았습니다. 보통적으로 성읍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성읍 사람들이 회의도 하며 장사도 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브아 사람들이 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고향입니다 (삼상 10:26).

그런데 한 노인이 저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인은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루종일 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영접하였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17절).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나그네를 돌보길 명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나그네 삶을 살았기 때
문입니다.



”[신 10: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노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기브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으나 기브아에 우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 노인을 제외하고는 기브아 성읍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브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이는 예의를 모르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모르면 짐승처럼 함부로 행하게 됩니다. 겉모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그 행동이 짐승과도 같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욕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삿 19:22]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 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삿 19:23]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삿 19:24]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 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삿 19:25]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 지라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집에 유숙할 때에 기브아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어싸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면서 "...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 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22절 하)고 노인에게 요구했습니다. 저들이 '상관한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성읍의 비류들이 원했던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는 저들이 남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저들의 모습은 소돔성에서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천사들이 소돔 성에 방문하였을 때 그곳 사람들이 모여들어 천사를 내어 주라고 롯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저들이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 19: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남자와의 성관계하는 죄악을 큰 죄악으로 보시고 소돔 성을 불과 유황으로 태워 멸망시키셨습니다. 성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가지고서 그것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같은 성끼리 성관계를 맺는 죄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롬 1:26]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롬 1: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기브아 성읍 비류들이 이러한 죄악을 행한 것에
는 마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곳 본문
에서 언급된 ‘비류’라는 단어는 원문에 <베네 벨

리알>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벨리알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브아 성읍의 비류들은 '사탄의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분명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지만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 '사탄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이 마귀를 신봉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처럼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극악한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마귀가 어찌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이 이미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여 갖은 나쁜 짓을 다 일삼도록 인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영향력은 더 이상 악해질수 없을 정도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비단 기브아 성읍 비

류들만이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기브아 성읍 비류'들과 같은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더러운 성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을 음식을 먹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저들이 불로 달려드는 나방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마귀가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죽음길의 동행자를 찾는 것입니다.

[삿 19:26]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삿 19:27]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삿 19:28]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삿 19:29]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찢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삿 19:30]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인은 동이 트자마자 곧바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첩이 문지방을 잡고서 죽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말에 태우고 에브라임 산지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첩의 시체를 12 덩이로 나뉘어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습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철저히 기브아 성읍 비류들의 죄악을 응징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시체를 보는 자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30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에 대한 형벌을 가하십니다. 여인의 몸이 12 덩이로 쪼개졌듯이 우리 또한 죄악으로 인해 12 덩이로 쪼개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죄악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쪼개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

[삿 20:1]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삿 20:2]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사십만이었으며

[삿 20:3]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인이 기브아 비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첩의 시신을 쪼개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 변방에 위치한 곳으로서 기브아 북쪽으로 대략 7.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매우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온 백성이 의논을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온 백성이 함께 동참한 때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온 백성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사십만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백성이 아니라 '보병'이었습니다. 즉, 싸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백성이 자그마치 40만 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장정 수가 60만 명인 것에 비해 실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것을 보고 놀란 사람은 첩의 시신을 보내었던 레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억울하게 죽은 첩의 일로 도저히 견디기 힘든 마음으로 기브아 비류의 죄를 응징하기 위해 첩의 시신을 나누어 보냈지만 이렇게 많은 백성이 모인 것으로 인해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함께 함은 하나님께 매우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백성이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으니 얼마나 좋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악을 응징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만 명이나 참여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군사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함께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 어떠한 악한 것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삿 20:4]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삿 20:5]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삿 20:6]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을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으로라

레위인은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에게 기브아 비류의 악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가 기브아 사람들이 유숙한 집을 에워싸고 생명을 위협하며 첩을 욕보여서 그녀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난 음행과 망령된 일을 온 이

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 첩의 시신을 쪼개어 보냈었음을 말하였습니다.

레위인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에 자신에게 있는 불편한 진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아 비류들이 강제로 첩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레위인이 직접 자신의 첩을 기브아 비류들에게 내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삿 20:7]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삿 20:8]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삿 20:9]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삿 20:10]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에 열, 천에 백, 만에 천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삿 20:11]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의 자초지종 기브아 비류들의 악행을 듣고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곧

바로 기브아 성읍 사람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들은 기브아 비류의 악행을 두고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10절)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이 말한 '망령된 일'은 <네발라>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발라>는 <나발>과 동의어인데 '어리석음', '지각이 없음', '무분별함', '비여함', '치욕', '불명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발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나발>은 사람에 대한 어리석은 일을 말합니다.

기브아 비류의 행한 악행은 단순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악에 국한되기 보다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크나큰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아 비류의 악행을 그냥 놔두서는 안 되고 저들과 저들이 거하는 기브아 성읍을 진멸해야 한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삿 20:12]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이뇨

[삿 20:13]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삿 20:14]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삿 20:15] 그 때에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
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이만 육천이요 그 외
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칠백인데

[삿 20:16]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칠백 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
이 없는 자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를 멸하기 전에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
였습니다. 만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성
읍 사람들의 악행을 제거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
해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역시 이스라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악행
을 저지른 기브아 성읍 비류들만 제거하면 될 일
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의를 단번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오
히려 온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였
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간
의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치르고자
모인 이스라엘 자손 쪽의 전사는 40만 명이었습
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26,000명이
있고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물매로 돌을 던지는

용사 700명이 함께 했습니다.

악한 자는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삿 20:17]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사십만 명이니 다 전사라

[삿 20:18]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삿 20:19]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삿 20:20]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향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삿 20:21]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이만 이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삿 20:22]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향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향오를 벌이니라

[삿 20:23]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

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
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
니라

[삿 20:24]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삿 20:25]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
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일만 팔천
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두고서
하나님께 여쭙보면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보통
때와는 달리 매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와 같은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철
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
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두번이나 패하
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싸웠지만 번번
히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하나님
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듣는 자의 마음에 더
러움이 있으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깨끗한 음성
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아마도 여호수아는 훨
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
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는
전쟁에 앞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의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 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겨우 3만 명밖에 안 되는 베냐민 지파 군사를 얹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경우 저들의 선입견에 입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전쟁에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 싸워야 할까요?"라고 여쭙던 것은 이미 저들 마음 속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 싸워야 하느지를 묻기 전에 어떻게 전쟁을 치뤄야 하는지를 여쭙야 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득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깨끗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선입견이 있거나 세상적인 방법이 가득할 경우엔 깨끗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 속에 결정돼버린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여쭙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속의 결정한 것과 같은 음성이 들려질 것

은 당연한 것입니다.

[삿 20:26]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엘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삿 20:27]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삿 20:28]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두차례 실패를 거듭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금 베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선 금식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한님께 드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7절에는 성막과 관련하여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27절).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성막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물이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성막은 실로에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1차 정복 기간이 끝난 후에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성막을 실로로 옮겼던 것입니다. 모세가 사용했던 성막은 버리고 실로에는 건물형식의 성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수 18: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그런데 실로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벰엘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벰엘에 있는 언약궤를 모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28절 상). 비느하스는 모세 때 일어났던 염병을 종식시켰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타락을 행함으로 온 이스라엘에 성적인 염병이 돌았는데 성적염병의 근원이 되었던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음으로써 염병을 종식시켰던 자입니다.

“[민 25: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민 25: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

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엄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실로에 있는 성전을 떠나 벰엘에서 언약궤를 지키고 있다는 말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대제사장은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찌 성전에 떠나 다른 곳에 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언약궤는 성전의 핵심인데 언약궤가 성전을 떠나 벰엘에 있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언약궤가 실로를 떠나 벰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베냐민과의 전쟁을 위해 잠시 언약궤를 벰엘로 가지고 왔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전쟁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전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뭇을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느하스가 전쟁을 위해 점을 치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과 언약궤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성막과 함께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성막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막을 떠난다는 것은 주님을 떠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성막에 거하십니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은 그 성전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며 우리는 성전과 늘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참으로 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 여쭙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 여쭘었다는 사실입니다. “...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28절 중). 베냐민과의 전쟁을 위해 모두 세차례 하나님께 여쭙었는데 한결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쭙었던 것입니다.

이는 비느하스의 영향력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의 아론은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때에는 점차적으로 대제사장의 권세가 약화되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대제사장의 권세는 더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여뵈었던 사람은 비느하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나아가 전쟁에 대해 여쭙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비느하스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일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그 영향력이 약화될 때에 교회와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올바로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른바 목회자의 타락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사람들이 예전같지 않다는 핑계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미워할꺼야'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런 목회자는 평신도보다 못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선지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유

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말씀의 홍수시대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가야만 들을 수 있던 설교를 핸드폰과 컴퓨터를 통해 얼마든지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홍수처럼 많다 할 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이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비느하스처럼 약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양만 목회자이지 속은 평신도보다 더 못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목사 가운을 입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 같은 속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옷을 입으나 벗으나 똑 같은 목사여야 하며 어디에 있던지 어떤 상황이던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백성에게 전해줘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여쭙았던 말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저들의 대화가 점차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들이 하나님께 했던 말은 이러했습니다.

“[삿 20:18]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

라”

저들은 전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베냐민 자손을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저들이 전쟁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은 저들 스스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전쟁할 것을 결정했고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 어느 지파가 나가서 싸워야 할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전쟁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여쭙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잘못은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저들처럼 이미 우리가 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떤 사람과 결혼 할 것을 결정해 놓고서 "언제 결혼식을 잡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라고 하나님께 여쭙을 때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미 저들은 전쟁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뜻대로 말씀을 해 주신 것 뿐입니다. 저들 중에 유다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들 마음 속에도 '유다 지파가 나가 싸우면 되겠어'란 생각이 있는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나가서 싸우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뜯어 고쳐주시면 될 것인데 왜 그렇지 않으신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뜯어 고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바라보실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서운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일을 결정한 것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왈가왈부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지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다 온전한 뜻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모든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첫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저들의 여쭙는 말은 처음 것과 사뭇 달라졌습니다.

“[삿 20:23]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저들은 하나님께 “...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23절 상)고 여쭙습니다. 첫번째의 질문은 “누가 나가 싸우리이까?”였는데 두번째 질문은 “내가 다시 나아가 싸울까요?”였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에는 그 어떠한 의심도 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번째 질문에는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쭙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첫번째 질문처럼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놓고서 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여쭙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의 신랑으로써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라고 여쭙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여쭙는 것은 "언제 결혼식을 올려야 할까요?"라는 질문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23절 하).

첫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두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드러다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 모두 "올라가서 치라"였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더니 패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문제인가요?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드러다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올라가서 치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말로 여겼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결혼식을 할까요?"라고 질문했을 때 "9월 17일이 좋겠구나"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9월 17일에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생활이 잘 이어지지 못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따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이혼을 당해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나의 생각에는 '아, 내가 올라가서 치면 전쟁에서 이기겠구나'라는 판단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월 17일에 결혼을 해라"는 음성을 들을 때에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나는 잘 살게 될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을 변질시키는 행위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주관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모든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극히 객관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여쭙는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28절 중).

이제서야 저들은 싸움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화는 첫번째에 행해졌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수만명의 군사의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 수만명의 군사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싸움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직 그 결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기회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이 로봇과 같은 삶과 같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당신 옆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함께 한다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옆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함께 한다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십시오. 물을 마시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 여쭙십시오. 숨을 쉬고 내 쉴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생각을 성령님과 공유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결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삿 20:29]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삿 20:30] 이스라엘 자손이 제삼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향오를 벌이매

[삿 20:31]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벰엘로 올라가는 길ियो 한편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

엘 사람 삼십 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삿 20:32]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
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꺾어내자 하고

[삿 20:33]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
어나서 바알다말에 향오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삿 20:34]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일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
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줄을 알
지 못하였더라

[삿 20: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
을 쳐서 파하게 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이만 오천일백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
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군사 90% 이상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이처럼 강력한 승리만이 있습니다.

[삿 20:36]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

한 군사를 믿고 잠간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삿 20:37]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다

[삿 20:38]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약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삿 20:39]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삼십 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삿 20:40] 연기 구름이 기둥 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삿 20:41]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
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
라

[삿 20:42]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
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
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삿 20:43]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
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
매

[삿 20:44]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일만 팔
천이니 다 용사더라

[삿 20:45]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이천 명을 죽였으니

[삿 20:46] 이 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의 옆 드러진 것이 모두 이만 오천이니 다 용사더라

[삿 20:47] 베냐민 육백 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베냐민 자손을 대하여 대승을 거두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느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냐민 군사들은 25,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의 수가 26,700명이었는데 대부분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삿 20:15] 그 때에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이만 육천 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칠백 인데”

본문에 의하면 세번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25,000명이고 도망을 친 자가 600명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1천명 정도의 군사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1,2차 전쟁 때에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1,2차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죽은 군사 수는 자그마치 4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만 명이나 죽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삿 20:48]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도망친 600명을 쫓는 대신에 베냐민 백성들이 거하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모두 죽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의 성읍을 정복할 때 성읍의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여자와 어린 자녀들까지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행여 살아남은 이방인의 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방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회개하고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칼을 들었던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악행을 미워하셨지만 회개치 않는 저들을 더욱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거하는 모든 백성과 가축까지 죽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저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은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방인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부지케 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치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

[삿 2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삿 21:2] 백성이 벰엘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 통곡하여

[삿 21:3]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즈러졌나이까 하더니

[삿 21:4]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에서 그 누구라도 베냐민 자손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아내로 내어주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베냐민 자손을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행위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로 취급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베냐민 지파가 이즈러진 것에 대해 너무나 슬퍼하여 벰엘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행을 행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 벰엘에 한 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유는 베냐민 지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삿 21:5]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삿 21:6]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삿 21:7]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삿 21:8]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삿 21:9]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삿 21:10] 회중이 큰 용사 일만 이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삿 21:11]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삿 21:12]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사백 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 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가 알아본 결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한 사람도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맹세하기를 "...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5절 하)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들이 베냐민 지파와의 관계에 있어서 맹세를 했던 두 가지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묶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내될 여자를 취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약속도 이행되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할 때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살려줌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600명의 베냐민 잔류군사의 아내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저들의 맹세로 인해 베냐민 지파의 씨가 끊어질뻔 했습니다. 이처럼 맹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마 5:33]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 5: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마 5:35]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
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
금의 성임이요 [마 5:36]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
라 [마 5: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
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삿 21:13]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삿 21:14] 그 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
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
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하므로
[삿 21:15]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
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
파가 꺾이 나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잔류민들과
평화를 공포하였습니다. 저들이 전쟁에서 도망을
친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평화를 맺게 된 것
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취한
여인 400명을 저들에게 주었지만 아직도 200명
이나 되는 베냐민 군사에게 아내가 될만한 여인
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가 대를 잇지 못하

고 사라질 것을 심히 염려하였습니다. 성경은 저들이 '늪우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저들의 행위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를 좀더 사랑으로 품었더라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레위인의 첩에게 악을 행한 것은 기브아 성읍의 비류들이었는데 몇 안 되는 비류들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전체 베냐민 지파를 타하여 저들을 진멸시켰던 것은 지나친 행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브아 성읍에 살고 있는 비류들의 악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베냐민 지파 전체를 진멸시켰던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게 나아가 자초지종을 잘 설명함으로써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만 가려내서 저들을 처벌하였다면 베냐민 지파가 이처럼 진멸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맛보았을 때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만 추려내어 그와 가족들만 죽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형제와 갈라지고 형제와 싸웁니다. 심지어는 형제를 죽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형제까지 죽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그들이 이혼하는 원인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서 큰 성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삿 21:16]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삿 21:17] 또 가로되 베냐민의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삿 21:18]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삿 21:19] 또 가로되 보라 베엘 북편, 르보나 남편 베엘에서 세겔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삿 21:20]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삿 21:21]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

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삿 21:22]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삿 21:23]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효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삿 21:24]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 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남은 베냐민 군사 600명에게 아내를 붙여주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명의 여인이 더 필요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여인들로는 400명 밖에는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딸들은 절대로 베냐민 자손에

게 아내로 줄 수 없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방법으로 저들의 아내를 구해준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실로에 매년마다 하나님의 절기 때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그런 행사가 열렸는데 실로의 딸들을 취하여 베냐민 자손들에게 내어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로의 딸들을 취할 경우엔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딸들을 내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베냐민 군사들은 몰래 숨어서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출 때에 저들에게 필요한 여인의 수만큼 취하여 아내로 삼고서 저들의 기업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아내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의 첩의 음행 사건으로 인해 온 베냐민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던 슬픈 사건 속에서도 다행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를 위해 내어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삿 21: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흐르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에 왕

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들의 왕으로 삼길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신(god)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길 원하셨습니다. 친히 왕이 되셔서 백성을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백성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서 오히려 세상에서 왕을 찾았습니다. 세상의 왕에게 절하고 세상의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면 세상의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천국의 복을 받게 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보다 못한 왕일 수 있겠습니까?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사사기

초판발행	2026. 7. 25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 신학교

꿈을향여신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로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로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위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